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요인 분석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홍 정 제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요인 분석

지도교수 조 동 준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홍 정 제

홍정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정 재 호 (인)

부위원장 전 재 성 (인)

위 원 조 동 준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요인에 관하여 경쟁하는 주장의 적실성을 통계적 방법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1945년 이래 미국, 소련, 영국은 20개가 넘는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핵무기는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해외에 배치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상이했다. 쿠바에 배치된 소련 핵무기는 6개월도 안되어 철수된 반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34년이 지난 뒤 철수되었다. 한편 오늘날 미국의 핵무기는 여전히 유럽의 여러 국가에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핵국가는 일부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하지 않는가?” 더 중요하게, “왜 핵국가는 일부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빨리 철수하고 다른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오랜 기간 뒤에 철수하는가?”

본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핵국가가 핵무기를 철수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부터 두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1)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할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2) 피후견국이 국제 안보 위협을 받을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 정량적 방법으로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을 사용한다. 통계 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통제 변수를 고려하여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주장을 검증한다. 정성적 방법으로 1977년 필리핀에 배치되었던 미국 핵무기 철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통계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파악한다.

통계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국제 안보 위협을 받을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가적으로 고려한 변수

는 일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후건국과 피후건국이 숙적 국가를 공유하면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호확증파괴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는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리핀 사례 연구 결과는 통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1972-1976년 기간 동안 필리핀은 공산주의 단체의 반란과 무슬림 반란 세력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심화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했다. 결국 1973년을 기점으로 핵무기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1977년 필리핀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는 철수되었다.

본 연구는 핵무기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와 핵전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상황적 조건을 가늠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핵 안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국제 안보 위협, 1945-2000년
학번: 2013-22891

목 차

I. 서론	1
1. 국제정치와 핵무기 해외 배치	1
2. 문제 제기	3
3. 연구 방법	4
4. 논문의 구성	4
II.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관련 기존 연구 6	
1. 후견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6
1) 소련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8
2) 영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11
3)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12
가.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12
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과 핵무기 안보	13
2.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관련 기존 논의	20
1) 소련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20
2) 영국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25
3) 미국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27
3. 소결	29
III. 연구 설계	32
1. 분석 대상 및 시기	32
1) 분석 대상	32
2) 분석 시기	34

2. 가설 설정	35
1) 해외 배치된 핵무기 안보와 핵무기 철수	36
2)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핵무기 안보	39
3)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과 핵무기 안보	41
3. 소결	45
 IV. 실증분석	 46
1. 데이터 및 변수 설정	46
1) 데이터 및 분석단위	46
2) 종속변수	46
3) 핵심 독립변수	47
가.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47
나.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	48
4)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독립변수	49
가.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변수	50
A.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50
B. 후견국의 국방비 수준	51
C. 후견국의 핵무기 보유량	52
나.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에 대한 변수	53
A.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동맹관계	53
B.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숙적 국가 공유	54
C.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선호 유사성	54
다. 국제 체제적 특성에 대한 변수	55
A. 상호확증파괴 확립	55
B. 냉전의 종식	56
2. 실증분석 결과	58
1) 분석 모형	58

2) 분석 결과 및 함의	62
3. 소결	66
 V. 사례 연구	67
1. 사례 선정의 이유	70
2.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	74
1)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74
2) 핵무기 안보 위협	80
3)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85
3. 소결	90
 VI. 결론	92
1. 요약 및 정리	92
2. 함의 및 후속 연구의 가능성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12

표 목 차

<표 II-1> 핵무기 해외 배치 1945-2000	7
<표 II-2>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결정 시 고려사항	15
<표 III-1> 연구의 범위	35
<표 IV-1> 독립변수의 통계값	57
<표 IV-2> 콕스 비례 해저드 분석 결과	61
<표 IV-3>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의 확률 변화	65

그 림 목 차

<그림 II-1>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량 (1961-1977)	19
<그림 III-1> 핵무기 철수 연쇄적 과정	36
<그림 V-1> 필리핀 핵무기 배치량 (1961-1977)	68
<그림 V-2> 필리핀 핵무기 배치량 (1972-1977)	86

I. 서론

1. 국제정치와 핵무기 해외 배치

냉전 시기 미국, 소련, 영국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동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했다.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광에 핵무기 부품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서유럽, 아시아, 대서양 지역의 14개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¹⁾ 소련은 서방세력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아메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6개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영국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동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중해, 동남아시아, 서유럽 지역의 4개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 소련, 영국은 모두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어 있던 기간은 상이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기간 배치되었던 소련의 핵무기는 쿠바에서 6개월도 안되어 철수되었다. 반면 가장 길게 배치되었던 미국의 핵무기는 유럽의 영국에서 47년, 아시아의 한국에서 34년 배치된 후에 철수되었다.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미국의 핵무기는 유럽의 벨기에,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독일에 배치되어 있다.

핵무기 해외 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안보가 취약하여 핵무기가 도난, 파괴, 권한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²⁾ 해외에 배치

1) Robert S. Norris, William M. Arkin, and William Burr, "Where they we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5, No. 6 (1999), p. 27.

2) 핵 안보(nuclear security)는 핵 물질, 기타 방사능 물질, 관련 시설을 도난, 사보타주, 권한 없는 접근, 불법적인 이동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된 핵무기의 보관 장소는 안전의 적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적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공군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 대부분의 핵무기 보관 장소는 미국 국방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³⁾ 또한 해외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 특히나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널리 퍼져 있으며 낮은 기종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용 또는 도난 위험에 훨씬 취약하다.⁴⁾

둘째, 핵무기 해외 배치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핵무기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후견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대부분의 피후견국은 핵 비(非)보유국이고 핵 비확산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NPT)의 가입국이다.⁵⁾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자국의 영토 내에 배치하고 핵무기 관련 군사 작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비핵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NPT II조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후견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는 핵무기의 이전을 금지하는 NPT I 조와 핵군축 의무를 명시한 NPT VI조의 취지에 반한다. 비록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 통제권의 직접적인 이전은 전시 상황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NPT 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변호하지만 핵무기의 해외 배치는 NPT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모순되고 다른 핵 비보유국이 자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도 된다는 구상을 지지한다.⁶⁾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7), p. 133.

3) U.S. Air Force, "Air Force Blue Ribbon Review of Nuclear Weapons Policies and Procedures," Headquarters U.S. Air Force, (2008).

4) William C. Potter, "Unsafe at any siz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3, No. 3 (1997), p. 25.

5) 후견국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하는 국가이다.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 내에 배치되는 국가이다.

6) Hans M. Kristensen, "The 520 Forgotten Bombs: How U.S. and British

2.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후견국의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기간과 철수되는 시기가 피후견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핵국가는 일부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하지 않는가?” 더 중요하게, “왜 핵국가는 일부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빨리 철수하고 다른 국가들에 배치된 핵무기는 오랜 기간 뒤에 철수하는가?”

일반적으로 후견국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핵무기 철수 결정을 내린다. 특히 군사적인 고려는 핵무기 철수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국제 안보 위협의 감소와 냉전의 종식은 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을 감소시켜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바 있다. 이러한 핵무기 철수의 동기는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monadic attributes),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dyadic attributes), 국제 체제적 특성(international systemic attributes)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서 핵무기의 안보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중 핵무기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이 핵무기 안보를 위협하게 되면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한다.

nuclear weapons in Europe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ashington, D.C.: Greenpeace International, 1995), p. 13.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채택하는 주요 연구 방법은 양적 방법 또는 정량적 방법이다. 또한 연구 대상인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의 핵심적인 논리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전제한다.

이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해 도출된 잠정적 결론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핵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구체적인 연쇄적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 중에서 단일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두 개 연구 방법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 양자의 장점을 취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 독립변수 중 하나인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의 연쇄적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1977년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먼저 2장에서 후견국이 어떤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후견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의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에서 핵무기 안보 이슈가 차지한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원인을 연구했던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 부분을 제

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 설계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을 통해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다. 그 다음에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후견국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핵심 독립변수로 상정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요 국제정치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가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체적인 지표로 조작화한다. 더 나아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지표화한다.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도를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체적인 연쇄적 과정을 탐구한다.

6장에서는 본론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더 나아가, 연구의 함의 및 향후 가능한 추가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관련 기존 연구

1절에서는 소련, 영국, 미국이 어떤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무기가 철수된 시기를 개략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 결정 시 고려했던 기준을 검토하고 핵무기의 안보 이슈가 차지한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소련과 영국 측 핵무기 해외 배치 자료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후견국 중 가장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2절에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 뒤 본 연구의 기여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1. 후견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본 절에서는 소련, 영국, 미국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핵무기 안보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1945년과 2000년 기간 동안 소련, 영국, 미국은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상이했다. <표 II-1>은 핵무기가 어떤 국가에 얼마동안 배치되어 있었는지 보여준다.

<표 II-1> 핵무기 해외 배치 1945-2000

후견국	피후견국	연도
미국	모로코	1954-1963
	덴마크	1958-1965
	대만	1958-1974
	스페인	1958-1976
	필리핀	1957-1977
	캐나다	1964-1984
	한국	1958-1991
	영국	1954-2000
	서독일	1955-2000
	이탈리아	1956-2000
	터키	1959-2000
	그리스	1960-2000
	네덜란드	1960-2000
	벨기에	1963-2000
소련	쿠바	1962
	헝가리	1974-1989
	체코슬로바키아	1969-1990
	폴란드	1967-1990
	동독일	1958-1991
	몽골	1967-1992
영국	말레이시아	1963-1965
	싱가포르	1965-1970
	사이프러스	1961-1975
	서독일	1972-1998

出處: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Nuclear Strategy, Nonproliferation, and the Cause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2014a), p. 466을 참고하여 정리 함.

註: 자료는 2000년을 기준으로 우측 절단 되었다.

1) 소련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냉전 시기에 소련은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세 개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핵무기 해외 배치에 관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련이 각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여러 상황적 증거에 바탕을 두어 추측해야 한다.

첫째, 소련은 1962년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같은 해 철수하였다.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했던 목적은 쿠바 방어, 냉전 정치, 미사일 능력, 베를린 문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중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베를린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⁷⁾ 소련은 미국의 핵전력에 크게 뒤처지고 있었고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본토 지역 근처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다. 1962년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0개, 전략폭격기 200개, 핵잠수함 6개를 보유했던 반면에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180개, 전략폭격기 630개, 핵잠수함 12개를 보유하며 소련보다 전략적 우위에 있었다.⁸⁾ 또한 소련은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한 측면이 있다. 만약 미국이 쿠바의 핵무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핵무기의 억지력을 바탕으로 소련은 안심하고 서방세력을 베를린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만약 미국이 협상을 제시하면 소련은 쿠바와 베를린을 맞교환할 수 있었다.⁹⁾ 만약 미국이 쿠바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면 쿠바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를 베를린 공격의 구실로 삼고 미국에게 큰 희

7) Graham Allison, "The Cuban Missile Crisis," in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60-264.

8) Allison, 2012, p. 262.

9) Allison, 2012, p. 263.

생을 치르게 할 수 있었다.¹⁰⁾ 반면 전술 핵무기는 좀 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쿠바에 배치되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무력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공개된 러시아 측의 문서에 의하면 1962년 10월 22일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공개 연설 직후 미국의 낙하산 부대가 쿠바를 습격할 것에 대비해 소련 측 지도자들은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¹¹⁾

둘째, 소련은 동유럽 지역에서 서방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틀에서 헝가리(1974-1989), 체코슬로바키아(1969-1990), 폴란드(1967-1990), 동독일(1958-1991)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1958년 중반 후르시초프(Nikita S. Khrushchev) 서기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핵무기 배치에 대응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도 동독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직후 해당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핵폭격기와 지대지 미사일을 받기 시작했다.¹²⁾ 이와 같이 소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대상으로 동유럽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동독일에는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었고 동독일의 핵무기는 서유럽에 위치한 미국의 공군기지들과 유럽의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었다.¹³⁾ 또한 당시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련의 전

10) 조동준, 「교범이 된 거짓말: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위기에서 Trollope 기법」, 『국제정치논총』, Vol. 47, No. 4 (2007), p. 81.

11) Svetlana Savaranskaya, "Tactical Nuclear Weapons in Cuba: New Evidenc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 (2003-04), p. 386.

12) Mark Kramer, "The "Lessons" of the Cuban Missile Crisis for Warsaw Pact Nuclear Operation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5 (1995), p. 112.

13) Matthias Uhl and Vladimir I. Ivkin, "'Operation Atom' The Soviet

략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유럽에 배치된 핵무기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방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¹⁴⁾

셋째, 소련은 1967-1992년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의 몽골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소련이 몽골에 핵무기를 배치한 가장 큰 전략적 목적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1960년대 국경 분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두 국가는 국경지대에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집중시키며 군비경쟁을 심화하였다. 1966년 소련과 몽골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고 1967년부터 소련의 병력과 핵무기가 몽골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중소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69년에는 몽골에 60,000-75,000명의 소련 군대가 주둔하였고 일부 병력은 핵탄두가 포함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었다.¹⁵⁾ 특히 소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으며 핵전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몽골에 배치된 소련의 400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중국의 주요 원자력 및 산업 지역을 겨냥하고 있었다.¹⁶⁾ 더 나아가, 분쟁이 절정에 이른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소련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지체시키기 위해 중국의 핵 시설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다.¹⁷⁾

Union's Stationing of Nuclear Missile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5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2-13 (2001), pp. 302-303.

14) Uhl and Ivkin, 2001, p. 303.

15) J. Enkhsaikhan,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Concept and Practice," *Asian Survey*, Vol. 40, No. 2 (2000), p. 344.

16) K. Subrahmanyam,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rategic Analysis*, Vol. 34, No. 2 (2010), p. 337.

17) Enkhsaikhan, 2000, p. 345.

2) 영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영국은 군사 동맹 기구의 틀에서 지중해, 동남아시아, 서유럽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해외 배치된 영국의 핵무기는 특정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지역 군사 동맹 기구의 회원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측면이 있다.

첫째, 영국은 중동 지역의 중앙조약기구(Central Treaty Organization)의 틀에서 1961-1975년 기간 동안 사이프러스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영국이 사이프러스에 핵무기를 배치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조약기구의 군사적 신뢰성을 제고하여 회원국인 이란을 동맹에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이란은 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非)아랍 국가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였다.¹⁸⁾ 군사적으로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사이프러스에 핵무기를 배치한 측면이 있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동맹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¹⁹⁾

둘째, 영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차원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1963-1965)와 싱가포르(1965-1970)에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군사적으로 동남아시아조약기구와 중국 사이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핵무기가 배치된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영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에 핵전력을 기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핵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²⁰⁾

셋째,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틀에서 소련의 위협으로부

18) Panagiotis Dimitrakis, "The Value to CENTO of UK Bases on Cyprus," *Middle Eastern Studies*, Vol. 45, No. 4 (2009), p. 613.

19) Richard Moore, "Where her Majesty's Weapons We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7, No. 1 (2001), p. 63.

20) Moore, 2001, p. 62.

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72-1998년 기간 동안 서독일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1972년 이전 시기까지 영국은 독일에 핵폭격기를 배치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지만, 1972년 이후부터는 영국이 전술 핵무기를 직접 독일에 배치하였다.²¹⁾

3)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가. 핵무기 해외 배치 전략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첫째,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벨기에(1963-), 영국(1954-), 덴마크(1958-1965), 그리스(1960-), 이탈리아(1956-), 네덜란드(1960-), 스페인(1958-1976), 터키(1959-), 동독일(1955-)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은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이는 작은 도발이 서로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위협이 공산주의 세력의 침공을 억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²²⁾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발발로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어 유럽에 핵무기 배치가 촉진되었다. 이는 일부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침공은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책략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²³⁾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는 대부분 서유럽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모로코(1954-1963)

21) Moore, 2001, p. 63.

22) Tom Sauer and Bob van der Zwaan,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after NATO's Lisbon Summit: Why their Withdrawal is Desirable and Feasibl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1 (2012), p. 80.

23)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27.

와 북아메리카 지역의 캐나다(1964-1984)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특히 모로코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최초로 배치되었는데²⁴⁾ 이는 동맹국이나 전역적 고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략 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의 긴급전쟁계획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⁵⁾

둘째,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한국(1958-1991), 필리핀(1957-1977), 대만(1958-1974)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다.²⁶⁾ 특히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1950년 7월 콰에 비핵부품이 배치되었고 완전한 핵무기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시기인 1954년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다.²⁷⁾

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과 핵무기 안보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핵무기 안보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을까?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의 주요 행위자는 대통령, 국방부, 원자력 위원회, 국무부, 사령부, 합동 원자력 위원회였다. 일반적인 핵무기 배치 과정은 대통령이 연간 필요한 비축량을 승인하면 원자력 위원회가 필요

24) 일반 상식과 다르게 완전한 핵무기는 영국보다 모로코에 먼저 배치되었다. 1954년 5월 모로코에 핵무기가 배치되었고 4개월 뒤인 1954년 9월 영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29.

25) Paul Schult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NATO and Beyond: A Historical and Thematic Examination," in Tom Nichols, Douglas Stuart, and Jeffrey D. McCausland (ed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2012), p. 20.

26)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0.

27) Norris, Arkin, and Burr, 1999, pp. 27, 30.

한 비축량을 생산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했다. 원자력 위원회는 그 해 생산 예측량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이 정보에 기초하여 합동참모 본부는 통합군 사령관과 특수군 사령관²⁸⁾에 할당했으며 사령관들로 하여금 핵무기 배치 필요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 뒤 합동참모 본부는 사령관들의 작전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핵무기 배치 계획을 준비했으며 원자력 위원회가 핵무기를 생산함에 따라 핵무기는 계획대로 배치되었다.²⁹⁾ 미국 의회 위원회인 합동 원자력 위원회는 강력한 입법권한을 바탕으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안전하게 보관 되고 필요 이상으로 해외에 배치되지 않는지 국방부와 원자력 위원 회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핵무기 안보는 미국이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955년과 1958년 두 번에 걸쳐 핵무기 해외 배치에 관한 주요 원칙들을 제시 했는데³⁰⁾ 핵무기 안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두 개의 원칙이 핵무기 안보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첫째, 핵무기는 적절한 보관 장소, 감시, 안보시설이 있는 장소에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핵무 기가 외국 영토에 배치될 때는 적절한 외교적 협정이 있고 핵무기 를 즉시 철수하기 위한 역량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³¹⁾

28) 할당된 핵무기의 세부 배치 권한은 대서양 총사령관, 유럽 총사령관, 극동 총사령관, 태평양 총사령관, 전략 공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다.

29)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 (1978), p. 93.

30) 1955년 제시한 아홉 개 원칙은 '인접성, 핵무기와 운반체계의 균형, 고출력 무기 통제, 외국 국가와 구체적인 협약, 적절한 시설, 시설의 공동 사용, 분 배 제한, 핵무기 시험, 사령부 단위 분배'이다. 1958년 제시한 다섯 개 원칙 은 '사령부 단위 분배, 사용 준비, 적절한 시설, 배치 계획, 외국 국가'이다.

31)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p. 45-46, 50-52.

<표 II-2>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결정 시 고려사항

분류	군사적 측면	정치적 측면	핵무기 안보
국방부와 국무부의 합동 공문 (1972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통합작전계획 및 우발사태 계획에서 필요성 • 전진배치 필요성 • 억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 피후견국에 미칠 영향 • 숙적 국가와의 관계 • 주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점령 가능성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보좌관의 분석서 (197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사령관의 작전 수행 필요성 • 유럽 사령관의 작전 수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민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중대한 안보 향상 필요성 • 특정 핵무기 안보 문제 제거 가능성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보좌관의 공문 (1975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통합작전계획에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카드로 사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보관 장소가 전쟁 중 공격을 받거나 쿠데타 과정에서 점령당할 우려
맥슨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부보좌관의 공문 (1976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 세력과의 군사적 균형 • 단일통합작전계획에서 필요성 • 핵무기 통합 필요성 • 핵무기 노후 정도 • 피후견국 내 대체 가능한 재래식 무기의 존재 혹은 근처 지역에 배치된 후견국 핵무기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후견국 정부의 핵무기량 인지 정도 • 감축되는 핵무기의 가시성 • 피후견국의 인지 없이 점진적으로 핵무기 철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배치된 다수의 핵무기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국제 테러 또는 피후견국 정부에 의한 핵무기 점령 위협

出處: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p. 146-151, 158-160, 161-163, 166-167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 함.

註: 경제적 측면이 간헐적으로 고려되었으나 해당 네 개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했다. 1972년 11월 ‘국방부와 국무부의 합동 공문’과 1976년 5월 ‘맥슨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부보좌관의 공문’은 하나의 특정 국가의 핵무기 철수를 분석하고 있고 나머지 두 문서는 여러 국가들의 핵무기 철수를 분석하고 있다.

핵무기 안보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었다. 미국은 핵무기 철수 결정을 할 때 크게 군사적 측면, 정치적 측면, 핵무기 안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표 II-2>는 1972년과 1976년 사이 미국의 네 개 핵무기 철수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비록 국가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삭제되어 있지만 군사적, 정치적, 핵무기 안보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핵무기 철수를 결정했는지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2년 11월 국방부와 국무부의 합동 공문은 특정 국가로부터의 핵무기 철수의 정치적/군사적 함의를 분석하여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 여덟 개의 고려 사항 중 하나는 국내 세력에 의한 핵무기 점령 가능성(possibility of seizure)이었다.³²⁾ 1975년 5월 코터(Donald R. Cotter)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보좌관이 슐레진저(James R. Schlesinger) 국방장관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특정 국가에 핵무기 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안보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알래스카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면 핵무기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1975년 9월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에너지 보좌관이 슐레진저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일곱 개 국가에 배치된 핵무기의 감축 이유를 ‘군사적 필요성’, ‘해외 배치된 핵무기 안보’, ‘경제적 고려’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있는 핵무기 보관 장소가 전쟁 중 공격을 받거나 쿠데타 과정에서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회의 우려가 제시되어 있다. 1976년 5월 3일 맥슨(William B. Maxon) 국방장관의 원자력에너지 부보좌관이 위컴(John A. Wickham, Jr.) 국방장

32) 여덟 개 고려 사항으로 ‘전쟁수행 고려, 전진배치, 신뢰성, 점령 가능성,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철수의 함의, 다른 국가들의 반응’ 일곱 개와 완전히 삭제되어 알 수 없는 한 개가 있다.

관의 군사 보좌관에 보내는 공문에서 특정 국가로부터의 핵무기 철수 이유의 하나로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많은 수의 핵무기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국제 테러 또는 피후견국에 의한 탈취 위협과 같은 정치적 고려라고 제시했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이슈는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1950년 초부터 핵무기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1952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핵무기 비핵부품의 해외 배치 계획을 러벳(Robert A. Lovett) 국방장관과 논의하면서 외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는 해당 국가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핵무기의 안보와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군대가 해당 장소에 있을 경우에 승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다.³³⁾ 이로 인해 핵무기는 적절한 보관 시설과 안보 협정이 제공되지 않으면 배치되지 않았고 외국 영토에 핵무기 보관이 외교적으로 허용이 되고 정치적 전략으로 유리하다는 국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³⁴⁾ 케네디 대통령은 1964년 핵무기 배치 계획인 국가 안보 활동 공문(National Security Action Memorandum, 이하 NSAM) 305에서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비중의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해외에 핵무기를 지나치게 배치하여 세계 긴장을 높이고 핵무기 관련 사고와 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핵무기 추가 배치 요청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³⁵⁾

해외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감시 기관의 역할을 했던 미국 의회의 합동 원자력 위원회는 1970년대 유럽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

33)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27.

34)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31.

35)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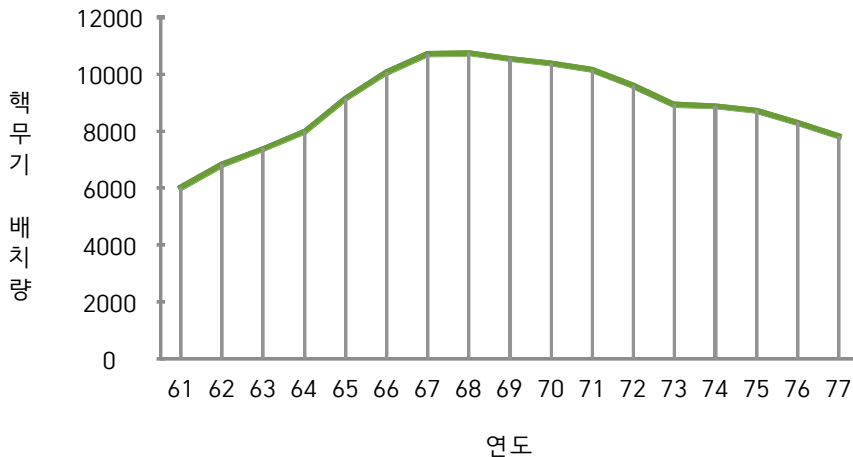
무기의 안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파스토레(John O. Pastore) 상원의원과 베이커(Howard H. Baker, Jr.) 상원의원은 1973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유럽의 미국 핵무기 보관 장소를 사찰한 뒤 ‘특정 북대서양조약기구 시설에 관한 안보 검토(Security Review of Certain NATO Installations)’를 작성했다. 파스토레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본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외 배치된 핵무기 안보를 평가했다.

...(유럽의) 핵무기 보관 장소는 테러리스트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몇몇 핵무기 보관 시설은 공산주의 세력의 기습 공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³⁶⁾

<그림 II-1>는 1961-1977년 기간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지역,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량의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핵무기 안보 문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을 기준으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36) George Murphy, Jr., “The 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 A Model for Homeland Secu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2002), p. 4.

<그림 II -1>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량 (1961-1977)



出處: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p. 177-181; Robert S. Norris,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Deployments Abroad, 1950-1977," History of the Nuclear Age Dinner Serie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9), pp. 7-21. 두 개의 문서를 참고하여 그래프로 그림.

註: 1961년과 1977년 사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지역,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수를 모두 합쳐 그래프로 표현 함.

본 연구는 핵무기 안보가 미국, 소련, 영국의 핵무기 철수와 연관을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핵무기 안보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소련과 영국의 정책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핵무기 안보 문제는 소련과 영국의 핵무기 철수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다음 절에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2.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관련 기존 논의

본 절에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핵무기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배치되고 철수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극비 사항이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절에서는 소련, 영국, 미국으로 분류하여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본 연구의 기여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1) 소련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³⁷⁾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전략 핵무기의 철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략 핵무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핵심이었고 후르시초프 서기장과 케네디 대통령의 핵무기 철수 합의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반면 전술 핵무기가 쿠바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고³⁸⁾ 소련 측의 자료가

37) 1962년 소련은 쿠바에 SS-4, SS-5 중거리탄도미사일, 소프까(Sopka) 해안 방어용 순항미사일, II-28 중거리 제트 폭격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였다. SS-4, SS-5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었고 공격용 핵무기 또는 전략 핵무기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소프까 해안방어용 순항미사일, II-28 중거리 제트 폭격기,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방어용 핵무기 또는 전술 핵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Allison, 2012, p. 257; Savaranskaya, 2003-04, p. 385.

38) 아나디리 작전(Operation Anadyr)의 계획자였던 소련군 사령관 그리브코프(Anatoli Gribkov)는 1992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구술사 컨퍼런스에서 1962년 당시 쿠바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세상에 최초로 공개했다. Svetlana Savaranskaya and Thomas Blanton, "Last Nuclear Weapons Left Cuba in December 1962,"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아직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존 연구는 두 가지 요인이 소련의 전략 핵무기 철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첫째, 많은 학자들은 분쟁이 상승하여 소련과 미국 간 전쟁 발발, 더 나아가 핵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우려가 핵무기 철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³⁹⁾ 대표적으로 앨리슨(Graham T. Allison)과 켈리코(Philip D. Zelikow)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마음을 바꾼 것은 쿠바의 해상 봉쇄가 아니라 공습과 침공과 같은 이후 행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한다.⁴⁰⁾ 저자들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미국이 분쟁을 상승할 위협이 명확하고 긴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한다.⁴¹⁾ 또한 리보(Richard N. Lebow)와 스타인(Janice G. Stein)에 의하면 위기가 상승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미국이 쿠바 또는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핵무기 철수를 급하게 결정했다고 제시한다.⁴²⁾

둘째, 학자들은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철수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터키 주피터 미사일 철수 비밀 제안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철수 결정에

Briefing Book, No. 449 (2013).
<http://nsarchive.gwu.edu/NSAEBB/NSAEBB449/>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39)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ition* (New York: Longman, 1999); Michael Dobbs, *One Minute to Midnight: Kennedy, Khrushchev, and Castro on the Brink of Nuclear War* (New York: Alfred A. Knopf, 2008); Richard N. Lebow and Janice G. Stein, *We All Lost the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Mark J. White, *Missiles in Cuba: Kennedy, Khrushchev, Castro and the 1962 Crisis* (Chicago: Ivan R. Dee, 1997).

40) Allison and Zelikow, 1999, pp. 128-129.

41) Allison and Zelikow, 1999, p. 129.

42) Lebow and Stein, 1994. pp. 140-141.

영향을 준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10월 26일 개인서신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면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27일 공개연설에서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터키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소련 측의 요구에 미국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는 26일자 개인 서신을 근간으로 삼아 협상을 하자는 트롤로프(Trollope) 기법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케네디 행정부는 주미 소련 대사 도브리닌(Anatoly Dobrynin)에게 미국이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하며 소련의 27일 요구를 수용했다.⁴³⁾

일부 학자는 후루시초프 서기장이 이미 핵무기 철수 결정을 내린 뒤 케네디 대통령의 터키 미사일 철수 합의 내용을 담은 도브리닌 대사의 서한이 도착했기 때문에 핵무기 철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⁴⁴⁾ 엘리슨은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한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결정은 도브리닌 대사의 서한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으며 터키 미사일 철수에 대한 합의보다는 높은 위협과 긴급한 분위기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강화하고 촉진시켰다고 설명한다.⁴⁵⁾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핵무기 철수를 완전히 결정하기 이전에 도브리닌 대사의 서한이 도착했고 서한의 내용을 듣고 난 뒤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⁴⁶⁾ 돕스(Michael Dobbs)는 도브리

43) 조동준, 2007, pp. 83-84.

44) Allison and Zelikow, 1999, pp. 128-129; Alice George,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Threshold of Nuclear Wa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3), p. 105.

45) Allison and Zelikow, 1999, p. 129.

46) Aleksandr Fursenko and Timothy Naftali, *"One Hell of a Gamble": Khrushchev, Castro, and Kennedy, 1958-1964*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7), pp. 284-285; Don Munton and David A. Welch, *The Cuban Missile Crisis: A Concise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80; Dobbs, 2008, pp. 322-323; Lebow and

년 대사의 서한이 결정의 순간이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서한의 내용을 들은 뒤 후르시초프 서기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조건에 빠르게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⁴⁷⁾

쿠바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철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일부 연구는 전술 핵무기의 안보 위협과 철수를 연결시킨다. 하지만 철수 결정 과정의 논의를 담은 소련 측 문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핵무기가 철수된 이유에 대해 추측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사바란스카야(Svetlana Savaranskaya)는 전술 핵무기가 철수된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핵 분쟁의 위험을 깨달은 소련 정책결정자들의 ‘핵 학습’ 때문일 것이라고 제시한다.⁴⁸⁾ 저자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전술 핵무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고 카스트로(Fidel Castro) 총리의 손에 핵무기를 두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한다.⁴⁹⁾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일조했지만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 안보가 소련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전략 핵무기를 철수한 원인이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를 소련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연구는 전술 핵무기의 안보 위협과 철수를 연결하지만 자료 제한의 문제로 추측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위협은 쿠바 미사일 위기

Stein, 1994, p. 141; White, 1997, p. 143; Don Munton, “Hits and Myths: The *Essence*, the Puzzles and the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3 (2012), pp. 315-317.

47) Dobbs, 2008, p. 323.

48) Savaranskaya, 2003-04, pp. 385-387.

49) Savaranskaya, 2003-04, pp. 385-387.

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전술 핵무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략 핵무기의 안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미국은 공습을 감행하여 핵무기를 제거하는 선택사항을 계속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의 위험도는 매우 높았고 핵무기 안보는 소련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을 수 있다.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배치된 소련의 핵무기가 철수된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연구들은 동유럽 국가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정부가 자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해줄 것을 소련 정부에 요구를 해서 핵무기가 철수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⁰⁾ 예를 들어, 노리스(Robert S. Norris)와 아킨(William M. Arkin)은 1987년 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중 가장 먼저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1989년 가을에 소련 측으로부터 핵무기가 철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한다.⁵¹⁾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즉,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가 핵무기 철수를 요구했고 소련은 어떤 전략적 고려로 핵무기를 철수했는지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당시 동유럽 지역은 심각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소련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안보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50) Robert S. Norris and William M. Arkin, "Nuclear Notebook: Where the Weapons A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7, No. 9 (1991), p. 49; Erzsebet N. Rozsa and Anna Peczei, "Nuclear Attitudes in Central Europe," *EU Non-Proliferation Papers*, No. 42 (2015), p. 4.

51) Norris and Arkin, 1991, p. 49.

2) 영국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영국이 사이프러스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철수한 이유를 중앙조약기구에 대한 영국의 정책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디미트라키스(Panagiotis Dimitrakis)는 사이프러스가 중앙조약기구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음을 설명하며 중앙조약기구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는 영국의 정책이 사이프러스에 배치된 핵무기 철수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⁵²⁾ 영국은 중앙조약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영구 주둔군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핵폭탄으로 무장한 폭격기를 사이프러스에 배치했었다.⁵³⁾ 디미트라키스는 중앙조약기구 회원국들 간의 약한 결속력, 중동에서의 소련의 직접적인 위협 감소, 주둔군 유지를 위한 비용을 단독으로 감당해야하는 부담 등으로 1974년 영국은 중앙조약기구로부터 군사적/경제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는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제시한다.⁵⁴⁾

중앙조약기구에 대한 영국의 정책 변화와 핵무기의 철수를 연결시키는 디미트라키스의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과정에서 후견국의 전략적 입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잘 포착했다. 또한 당시 영국이 중앙조약기구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해당 연구의 주장을 따르면 같은 시기 사이프러스에서 영국의 핵무기가 철수된 반면 서독일에서는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디미트라키스는 후견국의 경제적 고려와 안보적 환경의 개선과 같은 변수에만 초점을 맞출 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피후견국과 관련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던 피후견국의 개별

52) Dimitrakis, 2009, pp. 611-624.

53) Dimitrakis, 2009, pp. 611-619.

54) Dimitrakis, 2009, pp. 615-619.

적 특성을 간과했다. 디미트라키스는 그리스계와 터키계 사이프러스 민족 사이의 민족적 분쟁은 영국이 사이프러스 내의 기지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⁵⁵⁾ 하지만 영국의 핵무기는 그리스-터키 전쟁이 사이프러스에서 발발한 직후인 1975년에 급하게 철수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사이프러스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의 안보가 위협을 받아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비록 핵무기의 철수를 중심 주제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배치된 영국 핵무기가 철수된 이유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연구가 있다. 쉹(Ta-chen Cheng)은 수에즈의 동쪽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프러스에서 영국이 핵무기를 철수한 이유가 경제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제시한다.⁵⁶⁾ 또한 사이프러스에 배치된 영국 핵무기가 철수된 이유를 핵무기 안보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무어(Richard Moore)는 1975년 1월 영국의 핵폭격기가 그리스-터키 전쟁 직후 철수되었으며 이는 영국 정부가 안전과 안보의 이유로 핵무기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다.⁵⁷⁾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 보기 힘들다. 해당 연구는 핵무기가 철수된 원인을 추측하여 단편적으로 언급할 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5) Dimitrakis, 2009, p. 622.

56) Ta-chen Cheng, "Britain's Nuclear Command, Control and Operations," 復興崗學報, Vol. 87 (1995), p. 374.

57) Moore, 2001, p. 63.

3) 미국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해외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를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의 대통령 핵 구상(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⁵⁸⁾과 연관시켜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 코흐(Susan J. Koch)는 대통령 핵 구상이 가능했던 이유로 국가 안보의 전문가이자 역사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미국 대통령,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한 국가안보팀, 중동부 유럽과 소련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사막의 작전 승리를 통한 재래식 군사력 확인,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의회의 지지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⁵⁹⁾ 특히 이 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핵 구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고 1991년 9월 5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대통령 핵 구상의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제시한다.⁶⁰⁾

하지만 코흐의 연구는 후견국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중요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1991년 당시 미국은 벨기에,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서독일, 한국 총 여덟 개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핵 구상의 결과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만이 완전 철수되었다. 코흐의 연구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여덟 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58) 대통령 핵 구상은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이 소련의 상호 호혜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해외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일방적인 철수를 발표한 사건이다.

59) Susan J. Koch,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of 1991-1992,"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se Study Series, No. 5,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2), p. 21.

60) Koch, 2012, pp. 3-4.

그렇다면 “왜 대통령 핵 구상의 결과 오직 한국에서만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되었는가?” 코흐는 당시 안보 보좌관이었던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핵무기 철수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치기 위해 핵무기를 철수해달라는 한국의 요구 때문이었음을 암시한다.⁶¹⁾ 하지만 코흐가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하듯이 같은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핵무기가 완전 철수된 사실은 미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피후견국의 요구 이외의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고 국제 안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핵무기 안보의 수준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서만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핵무기 안보 문제가 미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 있었음을 제시한다.

비록 해외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핵무기가 철수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노리스, 아킨, 버(William Burr)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 대만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며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또는 직후에 대만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설명한다.⁶³⁾ 또한 저자들은 일본에서 핵무기가 철수된 상황은 여전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힘들지만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을 치유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철수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제시한다.⁶⁴⁾

61) Koch, 2012, pp. 5-6.

62) Koch, 2012, p. 6.

63)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4.

64)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1.

노리스, 아킨, 버의 연구는 핵무기 안보 문제와 관련된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철수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저자들이 설명하듯이 중국 방문 직후 닉슨 대통령은 대만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핵무기를 철수하기 직전까지 대만 국민당이 핵무기를 점령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었다.⁶⁵⁾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대만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이유가 핵무기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3. 소결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밝혀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은 핵무기 철수 과정에서 피후견국보다 후견국의 전략적 입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잘 포착했다. 핵무기의 해외 배치는 의지가 있는 후견국과 협조적인 피후견국을 필요로 하지만⁶⁶⁾ 후견국이 피후견국 모르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철수하거나⁶⁷⁾ 또는 피후견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했던⁶⁸⁾ 역사적 경험들은 핵무기의 실소유주이자 강대국인 후견국의 전략적 이익이 피후견국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

65)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4.

66) Fuhrmann and Sechser, 2014a, p. 459.

67) 영국은 싱가포르 정부와 사이프러스 정부 모르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철수하였다. Moore, 2001, pp. 60-63.

68) 소련은 쿠바의 카스트로 총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무기 철수를 결정했다. 또한 미국은 쿠바에 핵무기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의 쥬피터 미사일 철수를 소련에 제안하였고 이는 터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들과 긴밀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전재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대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적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 45, No. 3 (2005), p. 38.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결정에서 후견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피후견국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또는 안보 환경적 특성과 같은 변수가 후견국의 전략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동시에 철수되었던 적은 없었고 피후견국을 단위로 해서 개별적으로 철수되었다. 이는 특정 피후견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는 이유는 그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왜 후견국은 같은 시기에 특정 피후견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반면 다른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핵무기가 배치된 국가인 피후견국과 관련된 변수를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존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문제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를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중요한 목표이다. 핵무기는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핵무기 안보는 후견국이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안보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존 연구는 사례 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가설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해 드러난 특정 국가로부터의 핵무기 철수 원인은 다른 시기, 다른 국가에 확장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편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가설을 도

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에 초점을 맞춰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와 관련된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이를 통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요소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관한 보편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가설을 도입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한다. 개별 사례 연구에 치중하여 특수한 경우만 설명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1절에서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석의 대상 및 시기를 확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정한다. 어떤 종류의 핵무기 해외 배치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언제까지를 연구의 시기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2절에서는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주는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가설을 세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요 국제정치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활용한다.

1. 분석 대상 및 시기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해외에 배치된 후견국 핵무기의 철수 사례이다. 해외 배치되는 여러 유형의 핵무기 가운데 어떤 유형의 핵무기를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해외 배치되는 핵무기는 크게 핵무기에 대한 정의, 배치되는 영역, 목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핵무기의 구성 요소 중 핵부품이 포함되어 해외에 배치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다. 핵무기는 크게 핵부품과 비핵부품으로 구분되어 해외에 배치되었다. 1950년대의 핵무기는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으로 이뤄진 핵 ‘캡슐’과 비핵부품으로 분리되어 생산되었다. 1954년 최초로 미국의 핵부품이 모로코에 배치되기 이전에 미국은 비핵부품을 해외에 배치했었다. 이러한 행동의 논리는 크고 무거운 부품을 미리 배치하여 소련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완전한

핵무기가 빠르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였다.⁶⁹⁾ 비록 비핵부품은 핵무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핵무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다른 국가의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후견국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영토에도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미국은 1954년 일본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배치했었지만 1968년 일본 정부에 반환되기 전까지 오키나와는 미국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 후견국은 자국의 자치령 또는 속령에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괌, 푸에르토리코, 미드웨이 환초, 존스톤 환초 등에 핵무기를 배치했었다.⁷⁰⁾ 이러한 사례들은 핵무기가 후견국 영토 밖에 배치된 경우 이기는 하지만 외국 국가에 배치된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또한 후견국의 핵무기는 군함 또는 잠수함에 실려 해외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바다에 배치된 핵무기는 외국 국가의 영토라고 할 수 없으며 명확한 피후견국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 후견국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한 경우만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후견국의 핵무기가 의도치 않게 피후견국에 배치된 사례들이 있다. 소련이 1991년 붕괴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남게 되었다. 이는 핵무기가 자연스럽게 남겨진 것이지 피후견국에 배치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분석 대상으로서 ‘후견국’과 ‘피후견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⁷¹⁾ 본 연구에서 후견국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69)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27.

70)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Appendix B.

71) ‘후견국’은 영어로 patron, deployer로 번역될 수 있고 ‘피(被)후견국’은 host, client, protégé로 번역될 수 있다. ‘Patron-Client’를 ‘후견-피후견 국가’로 표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Wookhee Shin,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해외에 배치하는 국가이다.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 내에 배치되는 국가이다. 주의할 점은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후견국이면서 동시에 피후견국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한 후견국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에 배치되었던 피후견국이었다. 또한 두 후견국의 핵무기가 하나의 피후견국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독일은 미국과 영국 두 후견국의 핵무기가 동시에 배치된 피후견국이었다.

2) 분석 시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를 1945년부터 2000년까지로 설정한다. 1945년은 개발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연도로 핵무기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2000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학술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학술적 이유는 냉전이 종료되고 10년 정도의 기간을 추가로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는 냉전 시기에 비해 탈냉전 시기에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최근 정보는 오늘날 군사 작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극비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많은 정량적 데이터가 2000년까지를 범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00년까지 피후견국에 배치되었던 후견국 핵무기의 철수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Seoul: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가 있다.

구의 분석 대상 및 분석 시기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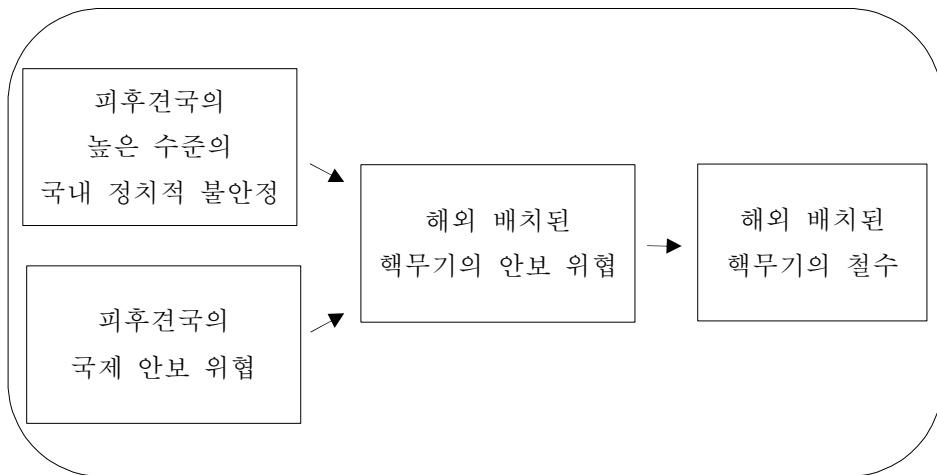
분류	상세 내용
연구 대상	-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으로 구성된 핵탄두를 포함하는 핵무기
영역	- 피후견국의 주권 영토 내에 배치된 핵무기
목적	- 후견국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피후견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
행위자	- 후견국: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하는 국가 - 피후견국: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에 배치되는 국가
시기	- 1945년과 2000년 사이

2. 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주는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또는 국제 안보 위협을 경험하면 핵무기가 안보 위협을 받게 되어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를 야기하는 연쇄적 과정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핵무기 안보 위협이 핵무기 철수로 이어지는 두 번째 연쇄를 살펴본 뒤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

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이 핵무기 안보를 위협하는 첫 번째 연쇄를 서술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과정은 <그림 III-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1> 핵무기 철수 연쇄적 과정



1) 해외 배치된 핵무기 안보와 핵무기 철수

국가가 자국의 핵무기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핵무기는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확실하고 효율적인 억지력을 제공한다.⁷²⁾ 저비스(Robert Jervis)는 핵무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어떤 국가도 이러한 파괴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72)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은 핵무기의 군사적 목적은 없으며 다른 적대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 유일한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조. Robert S. McNamara, "The Military Role of Nuclear Weapon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Survival*, Vol. 25, No. 6 (1983), pp. 261-271.

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들의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⁷³⁾ 마찬가지로 왈츠(Kenneth N. Waltz)에 의하면 핵무기는 전쟁의 비용을 무서울 정도로 높임으로써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전쟁도 수행하지 않도록 단념시키는 역할을 하고 강대국들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⁷⁴⁾ 둘째, 핵무기는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 개 핵무기 중 하나인 1 메가톤 범위의 핵무기가 맨해튼 섬에서 폭발할 경우 미국독립혁명, 영미전쟁, 멕시코 전쟁, 남북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⁷⁵⁾ 셋째, 핵무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군사적 자산이다. 핵무기를 생산, 정비, 현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외에도 핵무기 보관 시설, 기반 시설, 인력,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핵무기가 권한 없이 사용되거나 사고로 폭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중대한 핵무기 사고를 지칭하는 ‘부러진 화살(Broken Arrow)’의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령 그린란드 지역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실은 B-52 폭격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다. 1968년 1월 21일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Thule Air Base)에 긴급착륙을 시도하던 미국 핵폭격기가 추락하면서 실려 있던 네 개의 모든 핵무기가 폭발하였고 그 결과 최소 300-400 피트 너비와 2,200 피트 길이 지역이 플루토늄으로 오염되었다.⁷⁶⁾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수준이 악화될수록 후진국은 핵무

73) Robert Jervis,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 Com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2 (1988), pp. 80-90.

74)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1), pp. 1-32.

75) Barry Schneider, "Big Bangs from Little Bomb,"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1, No. 5 (1975), p. 27.

76) Schneider, 1975, p. 28.

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후견국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⁷⁷⁾ 핵무기의 보관 장소는 장벽, 청정지역, 조명시설, 침입탐지 비상경보 장치 등의 안보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⁷⁸⁾ 해외의 핵무기 보관 장소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공군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 대부분 핵무기 보관 장소는 미국 국방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⁷⁹⁾ 또한 핵무기를 보호하는 경계 부대는 테러 조직 또는 반란 단체와 같은 대규모 적대 세력의 공격과 침입을 저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육군 특수부대(U.S. Army Special Forces)는 훈련 과정에서 경계 부대, 장벽, 감지기를 뚫고 핵무기 보관 장소에 침입하는데 성공했었고 과감하고 잘 조직된 테러 단체도 충분히 핵무기 보관 장소 침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⁸⁰⁾ 그렇기 때문에 후견국이 해외 배치된 핵무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핵무기를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77) 웨이드(James Wade) 국방장관의 원자력 에너지 보좌관은 핵무기에 대한 위협의 종류로 권한 없는 사용, 심리적 공격, 테러단체의 공격, 침입자, 사보타주/간첩 행위, 피후견국에 의한 점령, 적대 세력에 의한 요원/군대 공격을 제시했다. William M. Arkin, "Nuclear Security: The Enemy May Be U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9, No. 9 (1983), p. 4.

78) U.S. Department of Defense, "Security Criteria and Standards for Protecting Nuclear Weapon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1974), p. 2.

79) U.S. Air Force, 2008.

80) Schneider, 1975, p. 27.

2)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핵무기 안보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핵무기를 보호할 수 있는 미국 군대가 있는 국가에 핵무기 부품의 배치를 승인하겠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의지는⁸¹⁾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핵무기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심한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중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핵무기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에 비해 분쟁이 더욱 폭력적이고, 격렬하며,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쏫불 시위에 비해 반정부적 반란은 폭력적이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력이 아닌 군사력이 동원되어 무력으로 진압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국가에 배치된 핵무기는 더욱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핵무기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특정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안보는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무력을 동반하는 권력 투쟁일 경우 핵무기 안보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67년 그리스의 쿠데타 과정에서 “그리스 내 미국 핵무기 보관 시설 근처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 되면서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물리적 안보를 우려했다.⁸²⁾ 마찬가지로 2016년 터

81)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27.

82) “Symington Finds Flaws in NATO’s Warhead Security; Greek Incident Hinted,” New York Times, (November 23, 1970).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E07E5DD1038E53BBC4B51>

키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자 인시르lik(Incirlik) 공군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핵무기는 위협을 받았다. 쿠데타 발발이 확실해지자 미국은 인시르lik 공군 기지의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인 델타(Delta)로 올렸고 터키 정부군이 반란군으로부터 해당 공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⁸³⁾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성공하면 핵무기의 안보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반(反)후견국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면 후견국의 핵무기를 점령하거나 파손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핵무기는 다양한 적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된다. 국가가 강력한 주권적 권위를 보유하지 못하면 정치 체계와 사회가 분열되고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⁸⁴⁾ 테러 조직과 반란 단체와 같은 다양한 적대 세력은 핵무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테러 단체는 핵무기 보관 장소에 몰래 침입하여 핵무기를 발사시키거나 핵무기에 대한 사보타주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를 암시장에 팔아 테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핵무기를 훔치고자 할 수 있다.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를 훔칠 위험이 있고 이는 국제 안보에 가장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설명하며 핵무기에 대한 테러 단체의 위협을 강조했다.⁸⁵⁾ 반정부 세력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전

DFB767838B669EDE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83) Barbara Starr and Ryan Browne, "How safe are US nukes in Turkey?" CNN Politics, (July 19, 2016). <http://edition.cnn.com/2016/07/19/politics/us-nuclear-weapons-turkey-attempted-coup>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24일)

84) Thomas Hobbes, *Leviathan, Parts One and Two*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8), p. 143.

85)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Prague As Delivered," (April 5, 2009).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

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점령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능을 유출시킬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할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3)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과 핵무기 안보

피후견국의 특성 중 핵무기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변수는 국제 안보 위협이다.⁸⁶⁾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핵무기 안보를 위협한다. 첫째, 안보 위협을 경험하는 피후견국은 스스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국의 핵무기를 점령할 수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 무정부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고 국가는 자조의 행동원칙을 따라야 하며 자기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⁸⁷⁾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안보 위협을 경험하는 국가는 핵무기를 소유할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⁸⁸⁾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적대 국가의

ama-prague-delivered (검색일: 2016년 4월 25일)

86) 핵무기는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이 있지만 본 연구는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의 정도가 높을수록 후견국은 핵무기의 역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역지를 포기하고 핵무기를 철수할 수 있다. 또한 후견국의 핵무기는 피후견국의 모든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핵무기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 안보 위협이 증가할수록 핵무기의 철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87) Waltz, 1981.

88)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공격을 억제할 수 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 국가를 견제하거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⁸⁹⁾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후견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여 안보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⁹⁰⁾ 하지만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억제 효과를 갖지 않으며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 줄 것을 확신할 수 없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포기하고 유연반응전략으로 선회하자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 전략에 강한 회의감을 표출하였고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고 싶어 하였다.⁹¹⁾ 이와 같이 피후견국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국의 핵무기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 정부는 북한과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2007), pp. 167-194;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1996-97), pp. 54-86; Sonali Singh and Christopher R. Way,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pp. 859-885; Benjamin Frankel, “The Brooding Shadow: Systemic Incentiv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Security Studies*, Vol. 2, Issue 3-4 (1993), pp. 37-78; John J. Mearsheimer,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Monthly*, Vol. 266, No. 2 (1990a), pp. 35-50;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b), pp. 5-56; Matthew Kroenig, “Importing the Bomb: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an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pp. 161-180; Matthew Fuhrmann, “Taking a Walk on the Supply Side: The Determinants of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pp. 181-208.

89) Sagan, 1996-97, pp. 57-63.

90)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2014b), pp. 919-935.

91) 전재성, 2005, p. 38.

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점령할 수 있었다.⁹²⁾ 또한 1970년 초 대만 정부는 철수하기로 계획된 미국의 핵무기를 점령하여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할 위험이 있었다.⁹³⁾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피후견국의 적대국가로부터 의도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핵무기의 확산이 위협적인 이유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⁹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⁹⁵⁾ 특히 적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협을 받게 된다. 적대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는 그 국가의 핵 시설을 무력 공격하는 것이다. 1942-2000년 기간 동안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은 15번에 걸쳐 적대 국가의 핵 시설을 공격했고 핵무기를 모색하던 국가 중 12%가 여러 번에 걸쳐 공격을 받았다.⁹⁶⁾ 더 나아가, 퍼만(Matthew Fuhrmann)과 크랩스(Sarah Kreps)는 최근에 군사적 분쟁을 경험하여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쌍에서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상대방 국가는 큰 위협을 느끼고 핵 시설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⁹⁷⁾

이러한 논의를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로 확장할 수 있다.

92) Schneider, 1975, p. 27.

93) 로저스(William P. Rogers) 국무장관과 레어드(Melvin R. Laird) 국방장관은 대만의 국민당이 철수하기로 계획된 핵무기를 점령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4.

94)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 W. Norton, 2003); Waltz, 1985.

95)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With a New Preface and Afterwor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96) Matthew Fuhrmann and Sarah E. Kreps, "Targeting Nuclear Programs in War and Peace: A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1941-2000,"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4, No. 6 (2010), pp. 831-859.

97) Fuhrmann and Kreps, 2010.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피후견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적대 국가는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A 국가와 B 국가가 적대 관계에 있는데 C 국가의 핵무기가 A 국가에 배치되면 B 국가는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62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쿠바에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되자 미국의 위협 인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공습을 감행해 소련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선택사항을 계속적으로 고려했다.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대응으로 해상 봉쇄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집행위원회는 봉쇄와 공습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다.⁹⁸⁾ 마찬가지로 10월 27일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공개연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케네디 행정부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공습)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계속 고민했다.⁹⁹⁾

더 나아가, 피후견국이 숙적 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으면 핵무기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딜(Paul F. Diehl)과 괴르츠(Gary Goertz)에 의하면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은 갑작스럽게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고 외교정책으로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해왔던 숙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¹⁰⁰⁾ 만약 갈등이 심화되어 피후견국과 숙적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는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1974년 숙적 관계에 있던 터키와 그리스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두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의 안보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미국

98) Allison, 2012, pp. 264-267.

99) 조동준, 2007, p. 80.

100) Paul F. Diehl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의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던 터키 공군기지에 지역 육군 병력이 들어오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이에 핵무기를 실은 폭격기는 긴급히 병커로 복귀하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미국 관계자들은 숨을 지키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¹⁰¹⁾

이러한 논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2: 피후견국이 국제 안보 위협을 받을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분석 대상으로서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범주와 분석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그리고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후견국의 특성인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국제정치이론적 논의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변수를 조작화한 뒤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본 장에서 제시한 가설을 정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101) Thomas Reed, *At the Abyss: An Insider's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Ballantine Books, 2004), p. 173.

IV. 실증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데이터 및 분석단위

본 연구는 퍼만과 세셔(Todd S. Sechser)의 해외 핵무기 배치 데이터(Foreign Nuclear Deployments Dataset)를 바탕으로 한다¹⁰²⁾ 퍼만과 세셔는 기밀 해제된 정부 공식 문서와 핵 비확산과 핵전략에 관한 다양한 역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초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구축했고 그 결과 해외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가능성이 열렸다. 1945년과 2000년 사이에 다른 국가의 영토에 배치된 24개의 핵무기 배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분석단위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양자관계-연도(non directed dyad-year)를 채택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후견국에 배치된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이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핵무기는 철수되거나 배치가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었다면 1, 철수되지 않았다면 0의

102) Fuhrmann and Sechser, 2014b; Foreign Nuclear Deployment Dataset.
<http://www.matthewfuhrmann.com/datasets.html>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값을 매겨 종속변수를 조작화한다.

데이터로 퍼만과 세서의 해외 핵무기 배치 데이터를 활용한다.¹⁰³⁾ 24개의 해외 핵무기 배치 사례 중 17개 사례가 핵무기 철수를 경험했고 7개 사례가 우측 절단 되었다. 전체 사례 중 핵무기가 철수된 비율은 약 71%에 해당한다.

3) 핵심 독립변수

가.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뱅스(Arthur S. Banks)의 국내 갈등 이벤트 데이터(Domestic Conflict Event Data)와 정치적 데이터(Political Data)를 활용한다.¹⁰⁴⁾ 뱅스의 데이터는 국내 정치적 갈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반정부시위, 총파업, 폭동, 게릴라전, 쿠데타, 혁명, 정부 위기 총 일곱 개의 지표를 활용한다. 각 변수들은 측정 오차를 내포하고 있고 비록 개별 지표들이 국내 정치적 불안과 관련된 현상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지표도 다른 지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¹⁰⁵⁾ 상기 일곱 개의 변수들을 조합하

103) Fuhrmann and Sechser, 2014b; Foreign Nuclear Deployment Dataset. <http://www.matthewfuhrmann.com/datasets.html>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04) Arthur S. Banks,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Binghamton: Banner Software, Inc, 2002); Domestic Conflict Event Data and Political Data. <http://www.databanksinternational.com>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05) Zaryab Iqbal and Christopher Zorn,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Assassin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3 (2008), p. 389.

여 대리 변수(proxy variable)를 만들 수 있는데,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면 반정부시위, 총파업, 폭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게릴라전, 쿠데타, 혁명, 정부 위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¹⁰⁶⁾

구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반정부시위, 총파업, 폭동을 활용하여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를 만든다. 게릴라전, 쿠데타, 혁명, 정부 위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들 변수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를 설정한다.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조작화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반정부시위, 총파업, 폭동 세 개 범주의 횟수에 1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해 게릴라전, 쿠데타, 혁명, 정부 위기 네 개 범주의 총 횟수에 1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을 해준다. 국내 정치가 안정적일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0으로부터 큰 값을 가진다.

나.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

국제 안보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한다.¹⁰⁷⁾ 많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이를 방어해낼 능력이 약한 국가는 안보 위협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카우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의 국가역량종합지표(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이하 CINC)를 활용한다.¹⁰⁸⁾ 먼저 국가와 숙적 관계에

106) Jo and Gartzke, 2007.

107) Jo and Gartzke, 2007, pp. 173-174.

108) J. David Singer,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

있는 모든 국가들의 CINC 점수를 더한 후 이를 해당 국가의 CINC 점수로 나눈다. 이에 1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을 해준다. 국가의 숙적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클라인(James P. Klein), 괴르츠, 딜의 새로운 숙적 국가 데이터(New Rivalry Dataset)를 참고한다.¹⁰⁹⁾ 국제 안보 위협 수준이 낮으면 0의 값에 가까워지고, 안보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0의 값으로부터 커진다.

4)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피후견국의 특성 이외에도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 국제 체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로 도입한다.

19-48; J. David Singer,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4, No. 2 (1987), pp. 115-132;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4.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09) James P. Klein,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and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3 (2006), pp. 331-348; The New Rivalry Dataset. <http://jpr.sagepub.com/content/43/3/331.abstract>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가.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변수

A.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 여부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지만 핵무기의 철수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먼저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는 핵무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리가 먼 목표물을 사정거리 안에 두기 위한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이다.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후견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할 유인이 떨어져 핵무기를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¹¹⁰⁾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은 핵무기가 계속 해외에 배치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의 핵무기 운반수단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전력 구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된다.¹¹¹⁾ 넓은 의미에서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핵전력 구조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일부이고 핵국가들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계속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욱 국제적 분쟁을 개시하고 호전적인 경향이 있다.¹¹²⁾ 적대 국가와의 분

110) Fuhrmann and Sechser, 2014a, p. 464.

111) Erik Gartzke, Jeffrey M. Kaplow, and Rupal N. Mehta, "The Determinants of Nuclear Force Struc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2014), p. 485.

112) Simon A. Mettler and Dan Reiter, "Ballistic Missil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7, No. 5 (2013), pp. 854-880.

쟁이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후견국은 핵무기의 해외 배치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 여부를 조작화하기 위해 메틀러(Simon A. Mettler)와 레이터(Dan Reiter)의 연구를 활용한다.¹¹³⁾ 미국은 1959년, 소련은 1957년, 영국은 1994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 만약 후견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매긴다.

B. 후견국의 국방비 수준

후견국의 특성 중 국방비 수준은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만약 후견국의 국방비가 감소될 경우 해외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축소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해외에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유지, 제반시설, 인력, 보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후견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전략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이는 핵무기 철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영국은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이는 사이프러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의 철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¹¹⁴⁾

군비 자원의 할당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가의 국방비 예산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¹¹⁵⁾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습에 따라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

113) Mettler and Reiter, 2013.

114) Dimitrakis, 2009.

115)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Measuring Military Allocations: A Comparison of Different Approach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0, No. 3 (1986), pp. 553-581; Daniel Barkley,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산으로 나누어 국방비 비중을 측정한다. 국방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카우 프로젝트의 국가 물질 능력(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데이터를 활용한다.¹¹⁶⁾ 국가의 국내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 글레디치(Kristian S. Gleditsch)의 확장된 무역과 국내총생산 데이터(Expanded Trade and GDP Data)를 활용한다.¹¹⁷⁾

C. 후견국의 핵무기 보유량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중 핵무기 보유량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후견국은 자국 본토의 핵무기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할 수 있다. 반면 보유한 핵무기의 개

Vol. 52, No. 3 (2008), pp. 455-473; J. Paul Dunne and Sam Perlo-Freeman, "The Demand for Military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Dynamic Panel Analysis,"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4, No. 6 (2003), pp. 461-474; Benjamin O. Fordham and Thomas C. Walker, "Kantian Liberalism, Regime Type, and Military Resource Allocation: Do Democracies Spend L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1 (2005), pp. 141-157; Benjamin E. Goldsmith, "Bearing the Defense Burden, 1886-1989: Why spend mo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5 (2003), pp. 551-573; Indra De Soysa and Eric Neumayer, "Disarming Fears of Diversity: Ethnic Heterogeneity and State Militarization, 1988-2002,"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5, No. 4 (2008), 497-518; Nam Kyu Kim, "Revisiting Economic Shocks and Coup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0, No. 1 (2016), pp. 3-31.

116) Singer, Bremer, and Stuckey, 1972; Singer, 1987;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4.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17) Kristian S. Gleditsch, "Expanded Trade and GDP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5 (2002), pp. 712-724; Expanded Trade and GDP Data. <http://privatewww.essex.ac.uk/~ksg/exptradegdp.html>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수가 적을수록 후견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핵무기를 철수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량을 조작화하기 위해 세서와 퍼만의 데이터를 활용한다.¹¹⁸⁾

나.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에 대한 변수

A.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동맹관계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에 관한 변수 중 두 국가의 동맹관계는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억지의 신뢰성을 높여 적대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¹¹⁹⁾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동맹을 맺고 있으면 확장 억지를 제공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가 계속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기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¹²⁰⁾ 이러한 사실은 동맹 여부가 핵무기 철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동맹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동맹 조약 의무와 조항 데이터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Data)를 활용한다.¹²¹⁾

118)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7, No. 1 (2013), pp. 173-195; Nuclear Arsenal Data. <http://www.matthewfuhrmann.com/publications--replication-files.html>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19) Fuhrmann and Sechser, 2014b, pp. 923-924.

120) Fuhrmann and Sechser, 2014a.

121) Brett A. Leeds, Jeffrey M. Ritter, Sara M. Mitchell, and Andrew G. Long,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8, No. 3 (2002), pp. 237-260; Alliance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방어조약을 맺고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매겨 조작화한다.

B.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숙적 국가 공유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동맹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숙적 국가를 공유하는가의 여부는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숙적 국가를 공유하면 후견국은 확장 역지를 제공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숙적 국가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¹²²⁾ 이는 숙적 국가의 공유여부가 핵무기의 철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숙적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클라인, 괴르츠, 딜의 새로운 숙적 국가 데이터틀 활용한다.¹²³⁾ 만약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최소한 한 개의 숙적 국가를 공유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매긴다.

C.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선호 유사성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 중 두 국가의 선호가 유사한 정도는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후견국은 비슷한 정치적 목표와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를 보호할 유인이 높아진다. 따라서 후견국은 확장 역지의 신뢰성을 높여 피후견국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Data. <http://atop.rice.edu/data>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22) Fuhrmann and Sechser, 2014a.

123) Klein, Goertz, and Diehl, 2006; The New Rivalry Dataset. <http://jpr.sagepub.com/content/43/3/331.abstract>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계속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두 국가의 선호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들의 동맹 포트폴리오에 기반을 둔 시그노리노(Curtis S. Signorino)와 리터(Jeffrey M. Ritter)의 S 스코어(S score)를 활용한다.¹²⁴⁾ 전 세계의 동맹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S 스코어는 유진 소프트웨어(EUGene Software)를 통해 추출되었다.¹²⁵⁾ S 스코어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두 국가의 이익이 완전히 수렴되면 1의 값을, 완전히 불일치하면 -1의 값을 가진다.

다. 국제 체제적 특성에 대한 변수

A. 상호확증파괴 확립

국제 체제적 특성 중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가 확립되었는가의 여부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냉전 시대는 미국이 핵전력의 우위를 누리던

124) 국가들의 선호의 유사성을 조작화하기 위해 메스키타(Bueno de Mesquita)는 타우-b(Tau-b)를 활용하여 동맹 포트폴리오 유사성을 측정하였고 이는 학계에서 약 20년 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시그노리노와 리터는 타우-b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계기법인 S 스코어를 제시하였다. S 스코어는 기존과 같이 동맹 포트폴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제연합 투표, 무역, 분쟁과 같은 다른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 더욱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urtis S. Signorino and Jeffrey M. Ritter,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3, No. 1 (1999), pp. 115-144.

125) D. Scott Bennett and Allan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No. 2 (2000), pp. 179-204. <http://eugenesoftware.org>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7일)

1963년 이전시기와 소련이 미국의 핵전략과 균형을 이루게 되어 상호 간의 절대적 파괴가 확실시되었던 1963년 이후 시기로 구분된다. 상호확증파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 국가의 1차 공격(first strike)으로부터 생존하여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2차 공격(second strike) 또는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무기 경쟁에 나서게 되었다.¹²⁶⁾ 상호확증파괴 시기에 후견국은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배치된 핵무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상호확증파괴를 나타내기 위해 1963년을 기점으로 하여 가변수를 설정한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1962년 미국의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에 의한 일련의 공개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식적인 핵전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¹²⁷⁾ 1963년부터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2년까지는 0, 1963년 이후부터 1의 값을 매김으로써 조작화한다.

B. 냉전의 종식

국제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안보 환경은 개선되었고 핵무기를 해외에 계속 배치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해외 배치된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는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시기는 0, 이후 시기는 1의 값을 매김으로써 변수를 설정한다.

<표 IV-1>는 이상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통계값을 보여준다.

126) 하영선 · 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 78.

127) Charles Fairbanks, Jr., "MAD and U.S. Strategy," in Henry D. Sokolski (ed.), *Getting MAD: Nuclear Mutual Assured Destruction, Its Origins and Practice*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2004), p. 137.

<표 IV-1> 독립변수의 통계값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피후견국 개별적 특성	(낮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576	0.6849	0.866	0	3.7136
	(높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576	0.3975	0.546	0	2.6391
	국제 안보 위협	601	0.9931	1.170	0	4.0686
후견국 개별적 특성	대륙간탄도미사일	601	0.8885	0.315	0	1
	국방비 수준	601	.3085	0.200	0.0702	.9085
	핵무기 보유량	601	21593.64	10559.46	50	44999.98
후견국-피후견국 양자적 특성	동맹	601	0.9567	0.204	0	1
	숙적 국가	601	0.4160	0.493	0	1
	선호	601	0.6716	0.241	-0.0811	1
국제 체제적 특성	상호확증파괴	601	0.8752	0.331	0	1
	냉전 종식	601	0.1348	0.342	0	1

註: 평균, 최소값, 최대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했고, 표준편차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한다.¹²⁸⁾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사건사 분석은 회귀 분석에 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첫째, 사건사 분석은 우측 절단 자료(right-censored observations)¹²⁹⁾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⁰⁾ 연구 기간인 2000년까지 총 24개 사례 중 7개 사례가 핵무기 철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우측 절단 자료를 고려하는 일은 중요하다. 우측 절단 자료를 제외하고 사건의 발생을 경험한 관측치만 분석에 포함시키게 되면 애초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관측치만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한다.¹³¹⁾ 둘째, 사건사 분석은 각 연구 대상이 사건 발생을 경험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연구의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²⁾ 본 연구는 핵무기가 배치된 뒤부터 철수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

128) 사건사 분석은 의학 분야에서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공학 분야에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경제학 분야에서 기간 분석(duration analysis)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129) 우측 절단 자료란 연구 기간이 끝났음에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자료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인 2000년까지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 사례들이 해당한다.

130) Janet M. Box-Steffensmeier and Bradford S. Jones, "Time is of the Essence: Event History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4 (1997), pp. 1415-1417.

131) 관측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측 절단 자료의 수가 많으면 자료의 편향이 발생한다. Box-Steffensmeier and Jones, 1997, p. 1417.

132) Box-Steffensmeier and Jones, 1997, p. 1417.

에 사건 발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종속변수를 가변수로 만들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또는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 analysis)을 하게 되면 편향이나 모순성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건사 분석에 비해 분산이 커지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인 추정치가 결과로 나온다.¹³³⁾ 셋째, 회귀 분석은 모든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취급하지만 사건사 분석은 시간 종속 공변수(time-varying covariate)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⁴⁾ 본 연구의 대부분의 변수는 매년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서 고려해야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건사 분석 모형 중에서 반모수 모형인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하 콕스 모형)을 사용한다. 콕스 모형은 생존 기간의 확률 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수 모형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 콕스 모형은 정치학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정치학의 대부분 이론은 어떤 생존 기간의 분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¹³⁵⁾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생존 기간의 분포에 대한 선험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콕스 모형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¹³⁶⁾

133) Ching-Fan Chung, Peter Schmidt, and Ann D. White, "Survival Analysis: A Surve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7, No. 1 (1991), pp. 59-98.

134) Box-Steffensmeier and Jones, 1997, pp. 1415-1417.

135) Janet M. Box-Steffensmeier and Christopher J. W. Zorn, "Duration Models and Proportional Hazard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4 (2001), p. 974.

136) 콕스 모형은 시간의 해저드 레이트에 대한 영향을 가정하지 않지만 연구 기간 동안 해저드 레이트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박스-스테픈마이어나 존은 여러 검증 방식 중 쇼펠드 잔차(Schoenfeld residual) 분석을 통해 전체 모형과 변수들의 비례성을 점검할 것을 제시했다. 쇼펠드 잔차의 분석을 통해 점검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과 변수들은 비례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Box-Steffensmeier and Zorn, 2001.

각 후견국은 고유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같은 후견국을 공유하는 사례들은 서로 상관(correlation)을 보이는 반면 다른 후견국을 공유하는 사례들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관측치 잔차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하기 위해 후견국을 기준으로 클러스터(cluster)를 적용하여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산출한다.¹³⁷⁾ 동일한 기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위해 에프론 방법(efron method)을 사용한다.¹³⁸⁾

137) 로버스트 표준 오차는 더욱 정확한 표준 오차와 유의 확률을 산출하지만 계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Paul Allison, “Survival Analysis,” in Gregory R. Hancock and Ralph O. Mueller (eds.),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2010), p. 418.

138) 콕스 모형의 부분 우도(partial likelihood)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동일한 생존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 가이다. 콕스 모형은 해저드 함수가 연속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생존 기간의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만 시간이 측정되는 방식 때문에 동일한 생존 기간이 존재하게 된다. 동일한 생존 기간을 다루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브레슬로(breslow), 에프론(efron), 정확한 주변 우도(exact marginal likelihood), 부분 주변 우도(partial marginal likelihood)가 있다. 각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수의 추정, 추정량의 효율성, 예측 적합, 계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에프론 방법은 가중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브레슬로 방법보다 더욱 정확한 추정량을 제공한다. 에프론 방법은 정확한 주변 우도의 근사치(approxim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측 적합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추정량의 효율성, 모수의 추정은 거의 동일하고 계산 시간은 짧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Mario Cleves, William Gould, and Yulia V. Marchenko, *An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Using Stata, 3rd edition* (Texas: StataCorp LP, 2010), pp. 148–151; StataCorp, *Stata Release 13. Statistical Software* (Texas: StataCorp LP, 2013), pp. 120–151; Jadwiga Borucka, “Methods for Handling Tied Events in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tudia Oeconomica Posnaniensia*, Vol. 2, No. 2 (2014), pp. 91–106.

<표 IV-2> 콕스 비례 해저드 분석 결과

구분	변수	계수	로버스트 표준오차	유의 확률
피후견국 개 별 적 특성	(낮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0.37	0.20	0.07+
	(높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1.40	0.72	0.05+
	국제 안보 위협	0.49	0.19	0.01*
후견국 개 별 적 특성	대륙간탄도미사일	-1.22	1.31	0.35
	국방비 수준	-0.00	0.82	1.00
	핵무기 보유량	0.00	0.00	0.75
후 견 국 - 피 후 견 국 양 자 적 특성	동맹	-1.37	0.92	0.14
	숙적 국가	-1.38	0.65	0.03*
	선호	-2.00	1.48	0.18
국제 체 제 적 특성	상호확증파괴	1.98	0.98	0.04*
	냉전 종식	3.45	0.44	0.00***
관측수		576		
Log Pseudo-likelihood		-30.57		
Wald χ^2		21.46		0.00***

註: : 양측검정(two-sided test)을 실시했으며,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유의수준은 다음과 같다. ***p<0.001, **p<0.01, *p < 0.05, +p < 0.1.

2) 분석 결과 및 함의

<표 IV-2>는 콕스 비례 해저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의 세 번째 열에는 공변수의 계수가 나와 있다. 계수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콕스 모형의 종속변수는 해저드 레이트(hazard rate)라는 것이다. 해저드 레이트는 시간 t 까지 관측 대상이 생존해 있다는 가정 하에 시간 t 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지칭한다.¹³⁹⁾ 그렇기 때문에 양의 계수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될 확률의 증가로 해석되고, 음의 계수는 핵무기가 철수될 확률의 감소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이 연구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콕스 모형의 분석 결과는 연구의 핵심 가설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첫째,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의 통계량은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는 핵무기의 철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95%의 유의수준을 근소한 차이로 벗어났다. 즉,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피후견국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연쇄적 과정에 의하면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할수록 핵무기 안보 수준은 악화되어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측에 맞게 피후견국의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핵무기 철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핵무기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약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만 피후견국의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핵무기가 계속 배치되도록 영향을 준다는

139) Box-Steffensmeier and Jones, 1997, p. 1419.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가 가지고 있는 측정 오차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산출되었을 수 있다. 반정부시위, 총파업, 폭동은 독재 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독재 정권은 이러한 반정부적인 행위를 정확히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측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누락되어 데이터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제로 피후견국의 낮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와는 다른 연쇄적 과정으로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후견국의 국제 안보 위협 변수는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피후견국이 국제 안보 위협을 겪을 경우 그렇지 않는 국가보다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쇄적 과정대로라면 피후견국이 국제 안보 위협을 경험할수록 핵무기 안보는 위협 받아 핵무기 철수로 이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한 변수들 중 일부만 본 연구의 예측 방향과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여부는 핵무기의 철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후견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핵무기는 철수되기보다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후견국의 국방비 수준과 핵무기 보유량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핵무기 철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양자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본 연구

의 예측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동맹 여부는 핵무기의 철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동맹 관계는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 중요한 변수이지만¹⁴⁰⁾ 핵무기가 계속 배치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핵무기 해외 배치와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숙적 국가 공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핵무기의 철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후견국은 숙적 국가를 공유하는 국가에 확장 역지를 제공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 반면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선호 일치 정도는 핵무기의 철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국제 체제적 특성에 대한 변수인 상호확증파괴 변수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핵무기의 철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상호확증파괴 시기에 핵무기는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상호확증파괴의 확립이 핵무기를 철수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핵무기는 해외에 오래 배치될수록 철수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냉전의 종식은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는데 이는 탈냉전 시기에 해외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들은 오랜 기간 배치되었기 때문에 철수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0) Fuhrmann and Sechser, 2014a.

<표 IV-3>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의 확률 변화

구분	변수	위험률의 확률 변화
피후전국 개별적 특성	(낮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30.73
	(높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304.83
	국제 안보 위협	63.80
후전국 개별적 특성	대륙간탄도미사일	-70.46
	국방비 수준	0.00
	핵무기 보유량	0.00
후전국-피후전국 양자적 특성	동맹	-74.68
	숙적 국가	-74.87
	선호	-86.47
국제 체제적 특성	상호확증파괴	623.57
	냉전 종식	3046.86

註: 실질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인 해저드 비율을 활용했다. 해저드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저드 비율에서 1을 뺀 뒤 100을 곱했고, 해저드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에서 해저드 비율을 뺀 뒤 100을 곱하고 음의 부호를 붙여줬다.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을 둔 분석은 영가설을 반증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추론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¹⁴¹⁾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위험률을 활용하여 각 변수가 핵무기 철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IV-3>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른 핵무기 철수의 기저선 해저드 비율의 확률변화를 나타낸다.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141) 조동준, 「국제연합총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 38, No. 2 (2004), p. 345.

불안정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될 확률이 약 305%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철수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안보 위협은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을 약 64% 높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숙적국가를 공유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을 75% 정도 감소시킨다. 국제 체제적 변수 중 상호확증파괴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는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각각 624%, 3047%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당 시기에는 핵무기가 철수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명시하고 변수를 설정한 뒤, 콕스 모형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통계적 유의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지지하였다.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은 핵무기의 철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연쇄적 과정을 검토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제고할 것이다.

V.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필리핀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핵무기가 1977년 철수되었던 사례를 분석한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정부는 1957년 필리핀에 핵무기를 처음 배치하였다. 필리핀에는 어네스트존(Honest John), 8 인치 및 155mm 곡사포(Howitzer),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 원자 파괴탄(Atomic Demolition Munition) 등 총 10 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다.¹⁴²⁾ <그림 V-1>에 제시된 1961-1977년의 필리핀 핵무기 배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 필리핀에는 62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었었고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67년에는 최고치인 316개가 배치되었다. 그러다가 배치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1971년 핵무기량이 소폭 상승하다가 1973년부터 1977년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되기 전까지 계속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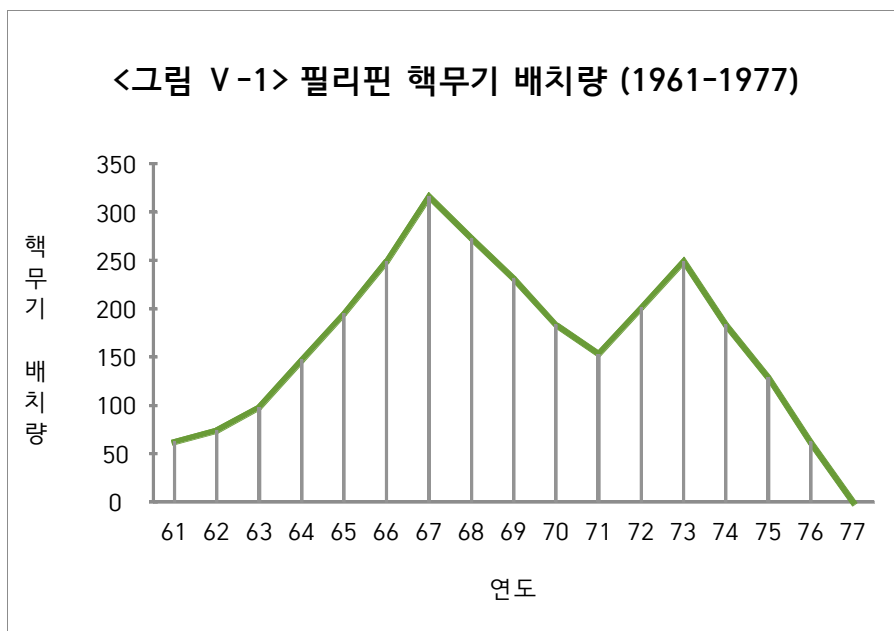
필리핀 사례는 본 연구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most-likely test case)¹⁴³⁾ 또는 이론 확증용 사례(theory-confirming case)에¹⁴⁴⁾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가 있다. 필리핀 사례는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를 충실하게 적용

142)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Appendix B.

143) 엑스타인(Harry Eckstein)은 이론에 들어맞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할 수 있는 사례를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고 정의했다. 만약 이론이 가장 부합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론의 신뢰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Harry Eckstein,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Strategies of Inquiry* (Reading: Addison-Wesley Press, 1975).

144) 라이프하트(Arend Lijphart)가 분류한 여섯 개 사례 연구 중 하나인 이론 확증용 사례 연구는 해당 사례가 일반 명제에 적합한 정도를 분석하며 특정 이론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Jonathon Moses and Torbjørn Knutsen, *Ways of Knowing: Competing Methodologies in Social and Political Researc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 132-133.

할 수 있고 다른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자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하는 연쇄적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⁴⁵⁾ 반면 필리핀 사례는 본 연구의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사례는 본 연구가 예측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이 검증되더라도 이론의 신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¹⁴⁶⁾ 또한 필리핀 사례는 전체 핵무기 철수 사례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出處: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80; Norris, 1999, p. 19. 두 개의 문서를 참고하여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량을 따로 그래프로 그림.

145) 이에 대해서는 1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46) 만약 가장 부합하지 않는 사례(least-likely test case)를 이론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론의 신뢰성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Eckstein, 1975.

연구 범위를 1972년부터 1976년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는 1973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핵심 독립변수 중 하나인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에 집중하여 사례 분석을 한다.

본 사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III장과 IV장에서 제시한 가설과 분석 결과를 실제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여 연쇄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충한다. 실증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확률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정량적 실증분석의 결과는 사례 연구 방법과 병행 사용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강화될 수 있다.¹⁴⁷⁾ 둘째, 사례 분석으로 추가 검증을 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을 더욱 확신할 수 있고 설명력을 보장할 수 있다.¹⁴⁸⁾

1절에서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왜 필리핀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왜 다른 사례가 아닌 필리핀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학문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2절에서는 1972-1976년의 기간 동안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심화가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안보를 위협했고 이것이 핵무기 철수로 이어졌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즉, 1972년과 1976년 기간 동안 (1)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2) 핵무기의 안보 수준을 악화시키고, (3) 핵무

147) 정재호, 「방법론과 중국연구」, 정재호 편, 『중국연구방법론: 연구설계·자료수집·현지조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 5-6.

148) Moses and Knutsen, 2007, p. 133.

기 철수로 이어진 과정을 3 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소결에서는 사례 분석을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1. 사례 선정의 이유

필리핀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학문적인 이유는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목표 중 하나는 이론을 실제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여 핵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이다.¹⁴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쇄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사례는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변수를 잘 충족하고 있다.¹⁵⁰⁾ 구체적으로, 1972년과 1976년 시기 동안 필리핀은 공산주의 세력과 무슬림 반란 세력에 의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1972년 9월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필리핀의 북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Philippine Communist Party-Marxist/Leninist)¹⁵¹⁾와 그것의 군사세력인 신인민군(New

149) 요나톤 모세스(Jonathon Moses) · 투르본 크누트센(Torbjørn Knutsen) 저, 신옥희 · 이왕휘 · 이용욱 · 조동준 역, 『정치학 연구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서울: 을유문화사, 2011), p. 225.

150)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는 2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51) 1960년대 마닐라 지역에서 대표적인 학생 운동자이자 급진주의자였던 시손(Jose M. Sison)은 기성세대의 주도 하에 있던 레닌주의의 필리핀 공산당(Philippine Communist Party)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충분히 전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탈당한 뒤 1968년 12월 마오쩌둥주의에 기반을 둔 필리핀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립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까지 필리핀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는 필리핀의 어떤 좌파 운동 중에서도 명확한 전

People's Army)이 마르코스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반란 활동을 벌였으며 남쪽 지역에서는 모로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비롯한 필리핀 무슬림 반란 세력이 분리 독립을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군과 무력투쟁을 했다.

또한 필리핀은 1972-1976년 시기에 국제 안보 위협을 경험했다. 해당 시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공산주의 국가 및 비동맹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필리핀의 안보 상황이 일부 향상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적 관계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 향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비동맹 국가들은 필리핀을 완전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¹⁵²⁾

당시 필리핀의 가장 큰 안보 위협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였다. 1968년 필리핀 정부가 사바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던 필리핀 무슬림 세력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필리핀이 사바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간의 영토분쟁은 심화되었고 둘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¹⁵³⁾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의 모로 무슬림 반란 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종교적인 의무이기 보다 사바 지역을 침공하고자 했던 필리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였다.¹⁵⁴⁾ 말레이시아 중앙 정부 차원

략, 일관성 있는 혁명 교리, 뛰어난 조직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Philippine Communists under Martial Law," Report, December 11, 1973,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63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1.

152) U.S. Department of State, "Your Visit to the Philippines," Briefing Book, November 1975,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28,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4.

153) John Bresnan, *Crisis in the Philippines: The Marcos Era and Beyo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76.

154) W. K. Che Man,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38-139.

에서 라만(Tunku A. Rahman) 총리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살(Faisal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Gaddafi) 대통령을 설득하여 이슬람 회의 기구(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의제에 필리핀 무슬림 문제가 상정되도록 하였다.¹⁵⁵⁾ 주 정부 차원에서는 사바 주의 수상인 무스타파(Tun Mustapha)가 사바를 훈련소와 피난처로 활용되게 하고 필리핀 무슬림 반란 세력에게 각종 무기와 탄약을 지원했다.¹⁵⁶⁾

또한 필리핀은 중동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았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이슬람 회의 기구는 석유 금수 조치를 수단으로 필리핀 정부를 위협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리핀의 무슬림 반란 단체를 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 카다피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자 자금, 무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모로민족해방전선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1972년과 1975년 동안 리비아와 이슬람 회의 기구는 필리핀 무슬림 세력에 약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했다.¹⁵⁷⁾ 사우디 아라비아는 필리핀 내 다양한 무슬림 세력에 자금과 피난처를 제공하였고 이란은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하여 필리핀 정부를 압박했었다.¹⁵⁸⁾ 또한 베트남 전쟁이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면서 필리핀의 안보 위협은 심화되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남은 무기와 장비를 필리핀의 무슬림 반란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지원할 위험이 있었다.¹⁵⁹⁾

필리핀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현실적인 이유는 자료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핵무기 해외 배치에 관한 정보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극비사항으로 분류되어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미 과거에 핵무기가 철수되었을 경우라도 오늘 날의 전쟁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 또한 피후견국의 명

155) Che Man, 1990, p. 139.

156) Che Man, 1990, p. 139.

157) Che Man, 1990, p. 140.

158) Che Man, 1990, pp. 141-142.

159) U.S. Department of State, 1975, p. 42.

시적인 동의 없이 핵무기를 배치했던 경우나 핵무기를 배치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핵무기 배치 자료는 후견국뿐만 아니라 피후견국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소련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공개된 미국에 대한 사례 연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제한적이다. 비록 자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공개되기는 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서가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및 철수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는 정보 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핵무기의 소유권과 배치의 역사: 1945년 7월부터 1977년 9월까지(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이다.¹⁶⁰⁾ 해당 문서는 1945년과 1977년 사이 이뤄진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및 철수 정책에 관한 중요 정보와 기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철수되어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Pacific Command)에서 매년 발간한 ‘미국 태평양 총사령관: 사령부 역사(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시리즈이다. 해당 문서는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직면한 문제점, 태평양 총사령관의 태평양 사령부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여 매년 합동참모본부에 제출되었다. 비록 핵무기의 배치와 핵무기 안보 이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지만 특정 연도의 보고서에서는 기록이 일부 남아 있어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구체적 운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문서를 서로 교차 검증하여 삭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 추론

160)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 국방부는 해당 문서를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1985년 정보공개법에 의해 처음 요청되었을 때 국방부는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중 일부인 182장만 공개했다. 학자들은 항소를 통해 150장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었고 현재 332장 분량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핵무기가 배치된 국가와 핵무기의 배치량 등 많은 정보가 삭제되어 있다. Norris, Arkin, and Burr, 1999, p. 35.

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태평양 사령부의 보고서는 태평양 지역만을 범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종합해보면, 필리핀은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에 가장 부합하며, 특히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사례 분석 대상으로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철수 사례를 선정한 것은 타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사례 선정 과정을 거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피후견국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핵무기 철수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2.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

1)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1972년에 필리핀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결국 그 해 9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2년 당시 시민사회의 폭력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은 증가했으며 남부 지역에서는 무슬림 세력의 반란이 심화되고 있었다. 1971년 8월 자유당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미란다 광장 폭탄 사건(Plaza Miranda Bombing)에 이어서 1972년에는 시청과 전기사업 시설 등 대표적 정치적/경제적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했다.¹⁶¹⁾ 1972년 9월 22일 엔

릴레(Juan Ponce Enrile) 국방장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는 몇 시간 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¹⁶²⁾

계엄령 선포의 원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산주의 반란의 위협이었다. 필리핀 헌법은 국가가 “폭력적인 전복, 폭동, 반란의 위협”이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문 대부분은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⁶³⁾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1972년 마닐라에서 잇달아 발생한 공산주의 테러 사건과 신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낸 무기들이 1972년 루손 섬에 도착한 사건을 얘기했다.¹⁶⁴⁾ 그는 또한 자서전에서 “공산주의 반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엄령은 더 일찍 선포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이는 계엄령 선포가 공산주의 반란 진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¹⁶⁵⁾

계엄령이 선포된 또 하나의 원인은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슬림의 분리주의 운동이었다.¹⁶⁶⁾ 1970년대 초반 무슬림과 필리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그 결과 무력 분

161) U.S. Embassy in Philippines, “GOP Emphasizes Subversive Threat as Bombings Continue,” Cable, September 11, 1972,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16,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2.

162) 마르코스 대통령으로부터 변절한 뒤 엔릴레 국방장관은 암살 시도가 조작된 연출이었음을 인정했다. Daniel B. Schirmer and Stephen R. Shalom (eds.),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Quezon City: Ken incorporated, 1987), p. 165.

163) Robert Klitgaard, “Martial Law in the Philippin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1972), pp. 12–13.

164) Klitgaard, 1972, p. 13.

165) Ferdinand E. Marcos,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the Philippines* (Manila: Department of Tourism, 1977), p. 259.

166) 김성철, 『필리핀 무슬림』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p. 134.

쟁도 증가하였다. 특히 1971년 선거 이전 무슬림과 가톨릭의 세력 균형이 변하는 라나오와 코타바토 지역에서 폭력이 심했으며 필리핀 전투 경찰대(Philippine Constabulary)가 배후로 지목되는 가톨릭 세력에 의한 무슬림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¹⁶⁷⁾ 증가하는 무슬림 위협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계엄령을 통하여 전국에서 무기들을 압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압수된 화기만도 50만정 이상이였다.¹⁶⁸⁾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얼마 뒤 리살 콜로세움의 군중연설에서 무슬림들이 필리핀 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¹⁶⁹⁾

계엄령은 공산주의 단체와 무슬림 세력의 반란을 더욱 촉진한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먼저 계엄령의 선포는 공산주의 세력에게 일종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였다. 계엄령의 선포는 공산주의 세력에게 한편으로 위기였는데 계엄령의 선포 직후 필리핀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신인민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부적절한 지하 조직, 통신 보안의 미흡, 충분히 세뇌되지 못한 조직원들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세력은 필리핀 정부군에 의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체포, 무기 압수, 통금, 이동의 제약으로 반란 활동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제약받았다.¹⁷⁰⁾ 1972년 12월 필리핀 정부는 중앙 루손 지역과 마닐라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필리핀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간부와 신인민군 사령관을 포함하는 수십 명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공산주의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¹⁷¹⁾

167) Schirmer and Shalom, 1987, p. 194.

168) 김성철, 2000, p. 134.

169) 김성철, 2000, p. 136.

170)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973, p. 2.

171)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973, pp. 2-3.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은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에게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계엄령을 반공산주의 세력들과 힘을 합쳐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했다. 1972년 10월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지시문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필리핀은 친마르코스 세력과 반마르코스 세력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공산당은 계급주의적 강조를 낮추어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¹⁷²⁾ 해당 지시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해 공산당에 합류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 목적으로 반파시즘 세력을 위한 민주주의 권리 재설립, 미국과의 불공정 조약 무효화, 마르코스와 측근 세력들의 공판 회부,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신인민회 세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¹⁷³⁾ 이러한 전략은 1973년 4월 필리핀 좌파 세력의 대표 기관으로 설립된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의 행동강령인 ‘10대 강령(10 Point Program)’으로 공식화되었다.¹⁷⁴⁾

1972년과 1976년 기간 동안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신인민군은 세력을 확대하고 소규모 군사 공격을 통해 필리핀 정부를 위협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신인민군은 ‘전략적 후퇴’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시골과 산간 지역에 흩어져서 회원 모집과 확대, 선동선전, 자금조달과 같은 지방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책임졌다.¹⁷⁵⁾ 공산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6년까지 신인민군은 1,500-2,000명의 전투 세력을 유지하

172) Thomas A. Marks, *Maoist Insurgency Since Vietnam* (London: Frank Cass & Company, 1996), p. 91.

173) Marks, 1996, pp. 91-92.

174) Schirmer and Shalom, 1987, pp. 209-210.

175) U.S. Embassy in Philippines, “NPA Assessment as of Mid-1975,” Airgram, October 1, 1975a,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22,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3.

여 활동했다.¹⁷⁶⁾ 신인민군은 필리핀 전투 경찰대 기지 습격, 필리핀 군 매복 공격, 정부 정보원과 지방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암살/납치 등과 같이 소규모 군사작전으로 필리핀 정부를 위협했다.¹⁷⁷⁾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력 사태는 신인민군의 근거지인 북부/중앙 루손 지역과 비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1973년 343 건에서 1974년 830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¹⁷⁸⁾

남부 지역의 무슬림 반란은 계엄령 선포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1972년과 1976년 기간 동안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¹⁷⁹⁾ 비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했던 무슬림 세력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무력 투쟁을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가톨릭 세력의 잔인한 학살과 테러 행위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슬림들이 생존을 위해 무력 투쟁의 길로 전환하는 배경이 되었다.¹⁸⁰⁾ 더욱 결정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세 가지 이유에서 무슬림들이 필리핀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정권의 중앙집권화는 권력

176) U.S. Embassy in Philippines, "Martial Law III," Airgram, January 29, 1976,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44,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20.

177)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a, p. 3.

178) U.S. Embassy in Philippines, "An Official GOP view of the Internal Security Situation," Airgram, February 26, 1974,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653,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11;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a, p. 3.

179) 필리핀 무슬림 세력은 필리핀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무슬림 세력과 필리핀 중앙 정부와의 갈등은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

180) 대표적인 사건으로 콜레히돌 섬에서 필리핀 정부군이 68명의 무슬림 청년을 사살한 1968년 3월 '자비다(Jabidah) 사건'이 있다. 또한 가톨릭 세력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일라가(Ilaga) 테러단체가 코타바토 지역의 무슬림들을 모스크와 학교로 유인한 뒤 수류탄을 폭파시키고 총기 난사를 하여 70명의 무슬림을 사살한 1971년 6월 '마닐라 학살'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Che Man, 1990; 김성철, 2000.

을 가톨릭 세력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행위였고, 둘째, 정당한 정치적 행위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은 정권을 받아들이거나 반정권 행위로 돌아서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셋째, 민간인들의 무기 압수는 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이다.¹⁸¹⁾

필리핀 무슬림의 대표적인 반란 세력이었던 모로민족해방전선은 분리 독립을 목표로 반정부 투쟁을 이끌면서 필리핀 정부와 대립하였다. 1970년대 미수아리(Nur Misuari)에 의해 설립된 모로민족해방전선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무스타파 수상과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자금, 무기, 훈련 지원을 받아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모로민족해방전선 무장 군인의 숫자는 1973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1975년에는 30,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¹⁸²⁾ 1972년 말부터 무슬림 반란 세력은 게릴라전, 기습 공격, 암살과 같은 복합 전략으로 필리핀군을 공격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무슬림 세력과 정부군 간의 전투 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필리핀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할당했다. 1974년과 1975년 사이 필리핀 정부군의 전체병력 중 75%가 무슬림 세력의 근거지인 민다나오에 배치되었고, 계엄령 선포 이후 5년 동안 군사비 지출은 5억 1800만 페소에서 35억 페소로 7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필리핀군의 숫자는 6만에서 25만으로 증가했다.¹⁸³⁾ 리비아의 중재로 1976년 12월 23일 트리폴리 협정(Tripoli Agreement)이 체결되기까지 무슬림 반란 세력과 필리핀 정부와의 분쟁은 지속되었고 필리핀은 심각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해야 했다.

181) Lela Noble, "The Muslim Insurgency," in Daniel Schirmer and Stephen Shalom (eds.),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Quezon City: Ken incorporated, 1987), pp. 194-195.

182) Noble, 1987, p. 195.

183) 김성철, 2000, p. 140.

2) 핵무기 안보 위협

계엄령 선포 후 심화된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했다. 미국의 핵무기는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에 위치한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와 수빅만 해군기지(Naval Base Subic Bay)에 배치되어 있었다. 1972년 계엄령 선포 이후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 지역의 전반적인 치안 상황은 악화되었다. 1973년과 1974년 사이 인적 범죄는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물적 범죄는 확연히 증가했다. 클라크 공군기지 지역 근처의 절도, 주거침입, 도둑질은 1,532 건에서 1,857 건으로 상승했으며 정부 재산에 대한 범죄는 476 건에서 606 건으로 증가했다.¹⁸⁴⁾ 수빅만 해군기지에서조차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정부 주택 지역에서의 물적 범죄는 65% 증가했으며 정부 재산에 대한 범죄는 20% 상승했다.¹⁸⁵⁾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신인민군의 공산주의 세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군사기지에 보관된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했다. 첫째,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가 위치한 중부 루손 지역 근처에 많은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였다. 신인민군의 주요 근거지는 북부/중부 루손 지역이었고 해당 지역에 가장 많은 세력이 밀집되어 있었다. 1974년 인민군의 총 정규군의 수 1,880명 중 북부/중부 루손 지역에 1,000명이, 1975년 인민군의 정규군 1,627명 중 910명이 북부/중부 루손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세력이 분포되어 있었다.¹⁸⁶⁾ 미국의 대(對)필리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1972년 6월 28일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

184) U.S. Embassy in Philippines, "Law and Order under Martial Law," Airgram, February 20, 1975b,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73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5.

185)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b, p. 6.

186)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a, p. 2.

안보 정책 공문(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이하 NSSM) 155의 결과물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신인민군의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필리핀에 위치한 미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의 하나로 신인민군과 같은 중부 루손 지역의 무장 반란군을 제시하였다.¹⁸⁷⁾

둘째, 반미 단체인 신인민군은 미국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인 미국 군사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할 위협이 있었다. 신인민군은 대표적인 반미주의 단체로 명시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했으며 그들의 주요 목표는 미국-마르코스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1972년 9월 23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 한 계엄령 선언문에는 필리핀 전투 경찰대가 신인민군으로부터 압수한 ‘지역 행동 프로그램 1972(Regional Program of Action 1972)’ 문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문서는 1972년 1월과 10월 사이 사회적 불만을 조성하고 전국적인 반란을 선동하여 혁명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신인민군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고 있었다. 해당 계획 중 특기할 만한 것은 7월과 8월 사이 지역적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9월과 10월 사이에는 폭력, 불안정, 혼란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폭탄 공격을 감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⁸⁸⁾ 지역 행동 프로그램 1972가 마르코스 정권의 계엄령 발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조작 또는 전체적으로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공군 특수수사기관(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은 해당 문서에 포함된 많은 계획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했으며¹⁸⁹⁾ 이는 지역 행동 프로그램 1972이 어느 정도 신빙

187)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NSSM-155: U.S. Policy toward the Philippines,”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August 28, 1972,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10,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8.

188) Klitgaard, 1972, pp. 30-31.

성을 가지는 문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인민군은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자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 군사기지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었다. 신인민군은 부족한 무기와 자금 조달을 위해 약탈과 도둑질을 일삼았으며 미군기지가 위치한 중부 루손 지역 근처에도 자주 출몰했다. 미군기지에 침입하여 무기를 훔친 뒤 자금 조달의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군사적/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 1976년 11월에는 70명과 50명으로 이뤄진 두 개의 무장한 신인민군 부대가 클라크 공군기지 북동쪽 경계선 근처의 마을을 습격하여 지역 민병대의 집에서 무기와 탄약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다.¹⁹⁰⁾ 비록 미군기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습격에 가담한 신인민군 간부가 군사기지를 지키는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포획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¹⁹¹⁾

미국 군사기지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공격 또는 침입 받을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위협 인식은 높았다. 1976년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군사기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공산주의 단체에 첩보원을 파견할 것을 계획했다. 미국 해군수사국(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은 수빅만 해군기지에 보내는 공문에서 공산주의 단체인 필리핀 민주주의 연합(Union of Democratic Filipinos)에 첩보원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으며 해당 첩보원은 수빅만 근처의 올롱가포 지역에서 정착하고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189) 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Crisis in the Philippines, Martial Law and Anti-U.S. Terrorism," Report, September 26, 1972,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51,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4.

190) U.S. Embassy in Philippines, "NPA Arms Raid on Villages Near Clark AB," Cable, November 24, 1975c,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918,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p. 1-2.

191) United States Embassy in Philippines, 1975c, p. 2.

했다.¹⁹²⁾ 해군수사국은 첩보원의 주요 임무가 “신인민군, 필리핀 공산당, 기타 조직이 자신들의 대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미국 군사기지에서부터 미국 정부 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¹⁹³⁾

1972년과 1976년 기간 동안 마르코스 정권을 위협한 필리핀 남부 지역의 무슬림 반란 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군사기지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악화시켰다. 첫째, 필리핀 정부는 모로민족해방전선을 포함한 무슬림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수의 필리핀군을 남부 지역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위치한 필리핀 북부 지역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약 75% 정도의 필리핀군이 남부 지역의 무슬림 반란 사태의 진압에 전념하고 있었고 이러한 안보 공백 상황을 틈타 공산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973년 5월 1일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무슬림 반란의 함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닉슨 대통령의 NSSM 180의 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필리핀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군이 많은 자원을 남부 지역으로 집중할수록 북부 지역에서 필리핀군이 약화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신인민군이 미군기지에 대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⁹⁴⁾ 또한 남부 지역에서의 반란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어 필리핀의 국내 안보가 악화되면 신인민군에 의해 미군기지가 위

192) U.S. Naval Investigative Service, “The Naval Investigative Service Proposes Running an Informant on “Deep Cover” to Provide Information to U.S. and Philippine Authorities on the Activities of Anti-Marcos Organizations,” Cable, July 20, 1976,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6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p. 2.

193) U.S. Naval Investigative Service, 1976, p. 3.

194)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NSSM-180: U.S. Policy in Southeast Asia in Light of the Southern Philippines Muslim Insurrection,”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July 26, 1973, National Security Council Institutional Files, p. 18.

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¹⁹⁵⁾

둘째, 분쟁이 지속되면서 무슬림 반란 세력의 반미 정서는 증가하고 있었고 무슬림 세력이 미국 군사기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비록 미국은 무슬림의 반란이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문제임을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었으나 군사 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군에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서 의도치 않게 개입되어 있었다. 무슬림 세력은 필리핀군이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무기로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인식했으며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친미 세력이었던 무슬림들도 미국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다.¹⁹⁶⁾ 반미 정서가 증가함에 따라 무슬림 세력이 군사기지를 포함한 미국 주요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안보는 반란군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무슬림 반란이 지속됨에 따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고 이러한 요구를 미국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마르코스 정권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었다.¹⁹⁷⁾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 위험에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극단적인 방안으로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1969년 재선 선거자금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왔는데,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핵무기를 싣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 해군 군함을 수색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협박한 뒤 얻어낸 결과물이었다.¹⁹⁸⁾ 1973년 바이로드(Henry A. Byroade)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외국인 혐오주의자나 반

195)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1973, p. 18.

196) U.S. Department of State, 1975, p. 44.

197)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1973, p. 18.

198) Schirmer and Shalom, 1987, p. 163.

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⁹⁹⁾

3)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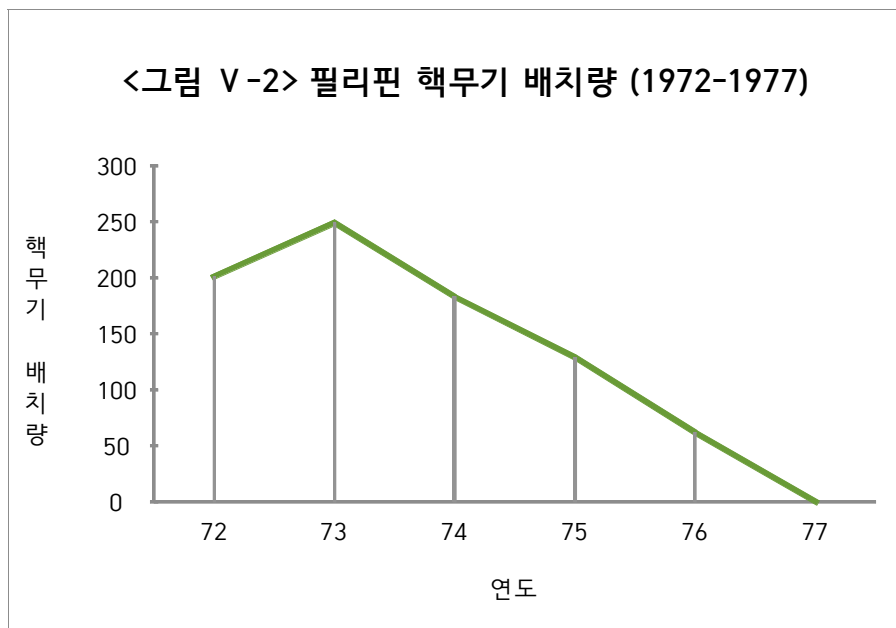
1972년과 1976년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안보 위협은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우려 수준을 높였고 이는 핵무기 배치량의 감소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⁰⁾ <그림 V-2>는 1972-1977년 기간 동안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변화량을 보여준다.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1973년을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7년 핵무기 배치 계획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는 작전명 ‘COMMANDO FLIGHT’로 1976년 말 필리핀에서 철수됐다.²⁰¹⁾ 작전의 고도로 민감한 특성과 가시성과 외부

199) U.S. Embassy in Philippines, “From the Embassy in the Philippines to the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January 1973, FRUS, 1969-1976, Vol. E-12, Document 315, p. 8.

200)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특히 핵무기가 가장 많이 배치된 유럽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핵무기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첫째, 많은 유럽 피후견국들은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1967년 그리스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영국에서는 반란 세력이 활동하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둘째, 유럽 피후견국들은 심각한 국제 안보 위협을 경험했고 전쟁에 연루되었다.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터키와 그리스는 사이프러스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 1974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기간 중 미국은 핵무기 보관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셋째, 1970년대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유럽 국가에서는 다양한 테러 단체들이 활동하였고 테러 공격이 급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Red Brigades), 독일의 적군파(Red Army Faction) 등이 민족주의 또는 좌파 이념에 기반을 두고 테러 활동을 벌였다.

201)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6,” Hawaii: Camp H. M. Smith, (1977), p. 197.

공개를 최소화할 필요성 때문에 필수 인원만 핵무기 철수 작전에 참여했고 핵무기는 탄약 수송함 USS FLINT (AE-32)에 실려 12월 1일 수빅만 해군기지 큐비 포인트(Cubi Point)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다.²⁰²⁾



出處: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80; Norris, 1999, p. 19. 두 개의 문서를 참고하여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량을 따로 그래프로 그림.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감소하기 시작한 1973년 시기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1973년 249개에서 1974년 183개로 떨어지며 이후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다.²⁰³⁾ 1974년 핵무기 해외 배치 계획은

202)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7, p. 197.

203)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계획이 역년(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이전 년도 7월 1일 - 해당 년도

1973년 7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국가 안보 결정 공문(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NSDM) 226을 승인하며 확정됐다.²⁰⁴⁾ 1973년 핵무기 배치 계획이 1972년 7월 18일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1972년 8월부터 1973년 6월까지의 상황이 계기가 되어 NSDM 226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72년 9월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의 선포는 1974년 핵무기 배치 계획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필리핀은 더욱 심각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고 핵무기의 안보 수준은 악화되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는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 안보를 강화하고 안보에 취약한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1972년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핵무기의 지휘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 없는 사용을 방지하는 장치인 핵탄두 안전장치 해제 기구(Permissive Action Link, 이하 PAL)²⁰⁵⁾를 필리핀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에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²⁰⁶⁾ 이는 필리핀

6월 30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1964년 핵무기 배치 계획인 NSAM 305 이후부터 해당 년도 핵무기 배치 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최종 확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문제로 계획이 늦게 수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계획이 수정되어 핵무기가 추가 배치 또는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년도 핵무기 배치량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측정되었다.

204)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54.

205) PAL은 적대국가, 테러리스트, 변절한 미국 군인 등이 핵무기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장치로서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한다. 두 가지의 암호가 거의 동시에 입력되어야 핵무기의 잠금이 풀린다. 1962년 6월 NSAM 160에 의해 최초로 PAL이 핵무기에 설치되었다.

206)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2," Hawaii: Camp H. M. Smith, (1973), pp. 251-255;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4," Hawaii: Camp H. M. Smith, (1975), p. 264.

에 배치된 핵무기가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고 핵무기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1974년 12월 18일 태평양 공군 사령부(Pacific Air Forces)는 PAL이 설치되지 않은 81개의 핵무기를 모두 미국으로 철수시켰고, 결국 PAL이 설치되어 보안이 강화된 핵무기만 필리핀에 남게 되었다.²⁰⁷⁾

1974년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연간 역사 보고서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중요한 원인이 핵무기 안보 문제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확보는 1974년 동안 가일러(Noel A. M. Gayler) 태평양 총사령관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서술하고 그 해 여름 합동참모본부는 핵무기 안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핵무기 배치의 조건을 재평가할 것을 총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한다.²⁰⁸⁾ 해당 요청의 답신으로 합동참모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가일러 총사령관은 핵무기의 해외 배치를 한국, 하와이, 괌, 알래스카, 군함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²⁰⁹⁾ 필리핀은 당시 태평양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장소 중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가일러 총사령관은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철수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는 통합군 또는 특수군 사령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고 각 사령관은 핵무기의 실제 배치와 관련하여 큰 권한을 갖는 것을 고려할 때 가일러 총사령관의 이러한 제안은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해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작업이 태평양 사령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단일통합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 Plan)이 재편성되면서 제3 전술전투 비행단(3rd Tactical Fighter Wing)인 필

207)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5, pp. 263-264.

208)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5, p. 262.

209)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5, p. 262.

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 역할이 줄었다.²¹⁰⁾

또한 1975년 5월 9일 자의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에너지 보좌관의 분석서를 통해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된 원인이 핵무기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5년 4월 30일 스코크로프트 국가 안보 부보조관은 포드(Gerald R. Ford) 대통령이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해외 배치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위کم 국방장관의 군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²¹¹⁾ 이에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에너지 보좌관은 해당 명령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존의 철수 계획을 분석하여 5월 9일 슬레진저 국방방관에 보내기 위해 제출했다.²¹²⁾ 해당 문서는 필리핀으로 추정되는 국가에서²¹³⁾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210)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5, pp. 264-265.

211)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58.

212)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58.

213) 비록 국가 이름이 지워져 있지만 해당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단서로 활용하여 ‘b’가 필리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b’ 부분에 “CINCPAC has no operational requirement for these weapons past FY 75.”라고 적혀 있다. ‘CINCPAC’을 통해 해당 국가는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인 것을 알 수 있다. 1975년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 한국, 괌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문서에서 ‘a’가 괌이기 때문에 ‘b’는 필리핀 또는 한국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문장은 ‘b’가 한국보다 필리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1974년 가일러 태평양 총사령관은 필리핀에 핵무기를 계속 배치할 것을 추천하지 않았고 같은 해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단일통합작전계획에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의 역할은 감소했었다. 즉, 1975년 이후 태평양 사령부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운용 필요성(operational requirement)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b’ 부분에는 “It had been planned to withdraw all XX remaining tactical nuclear bombs from XX by early FY 76, upon Presidential approval of FY 76-77 Deployment Plan.”라고 적혀있다. ‘withdraw all XX remaining tactical nuclear bombs’라는 내용은 ‘b’가 한국이 아닌 필리핀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필리핀에서 폭뢰(Depth bomb), 아스록(Asroc), 탈로스(Talos)가 1974년 모두 철수했었고 1975년 당시 필리핀에는 전술 핵무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반면 한국에는 원자파괴탄(Anti

한 기존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면 대략 백만 달러 정도의 공사비용이 드는 중대한 안보 향상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운영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²¹⁴⁾ 그렇기 때문에 권유 사항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1976년에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제시하였다.²¹⁵⁾ 코터 국방장관의 원자력에너지 보좌관의 분석을 통해 당시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는 보관 시설의 중대한 안보 향상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인식했었다. 둘째,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은 핵무기 안보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안보 위협을 받았고 이것이 핵무기 철수로 이어졌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이론 확증용 사례로서 필리핀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핵무기 철수 사례를 분석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1972년 9월 계엄령 선포는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필리핀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신인민군은 반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대했고 소규모 군사작전으로 필리핀 정부를 위협했다. 또한 계엄령의 선포가 계기가 되어 필리핀 남

Demolition Muniton), 어네스트존(Honest John),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 라크로스(Lacrosse) 등 총 10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만약 'b'가 한국이었다면 'remai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214)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59.

215)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p. 159.

부 지역의 무슬림 세력의 무력 항쟁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심화는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졌다. 핵무기 보관 장소인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는 신인민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 무슬림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대부분의 필리핀 정부군이 남부 지역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미군기지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이 심화됨에 따라 마르코스 대통령이 핵무기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다. 핵무기에 대한 안보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1973년을 기점으로 핵무기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필리핀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가 철수되었다.

이러한 사례 분석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핵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연쇄적 과정을 보여주고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여 실증분석을 보충하였다. 즉, 피후견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어떻게 핵무기의 안보 수준을 악화시켰고 이것이 핵무기 철수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재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였고 통계분석 결과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VI. 결론

1. 요약 및 정리

본 논문에서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었는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핵무기 철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했다.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주는 피후견국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국제정치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가설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콕스 모형을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정성적 방법인 사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제고했다.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핵무기의 철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둘째, 기존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 문제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셋째, 기존 연구는 사례 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가설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중 핵무기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초점을 맞춰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표로 정량적 분석을 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할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고, 2) 피후견국이 국제 안보 위협을 받을수록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핵심 가설을

수립하였다. 핵심 독립변수에 더하여 후견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후견국의 국방비 수준, 후견국의 핵무기 보유량,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동맹관계,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숙적 국가 공유,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선호 유사성, 상호확증파괴 확립, 냉전의 종식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콕스 비례 해저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는 연구의 핵심 가설을 모두 지지하였다. 피후견국이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안보 위협을 경험할수록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밝혀졌다. 이는 핵무기의 안보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추가적으로 고려한 변수는 일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숙적 국가를 공유하면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호확증파괴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는 핵무기가 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국방비 수준, 핵무기 보유량, 동맹관계, 선호 유사성 변수는 제한적인 설명력을 가짐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1977년 필리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철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의 높은 수준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 경험은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보를 위협했고 이는 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야기하는 연쇄적 과정을 확인하고 정량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2. 합의 및 후속 연구의 가능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합의와 정책적 합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였다. 핵무기의 해외 배치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핵무기 연구 분야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주는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이 핵무기 철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피후견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었던 원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합의를 쫓았다. 예를 들어, 1991년 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된 원인이 핵무기 안보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했고 국제 안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 안보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핵무기 안보 문제가 핵 태세(nuclear posture)와 밀접히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핵 태세는 오늘날 핵무기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야이다.²¹⁶⁾ 가츠키, 카플로, 메타는 핵무기를 획득한 뒤에도 국가는 지휘 체계, 운반 수단, 배치 장소 등 핵 태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⁷⁾ 핵무기의 해외 배치도 이러한 핵 태세 결정의 하나로 국제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²¹⁸⁾ 후견국은 특정 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핵무기

216) 핵 태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이 있다.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Gartzke, Kaplow, and Metha, 2014; Vipin Narang,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7, No. 3 (2013), pp. 478-508.

217) Gartzke, Kaplow, and Metha, 2014.

218) Fuhrmann and Sechser, 2014a, p. 459.

를 계속 배치하는 선택을 한다. 핵무기 안보가 후견국의 핵무기 철수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란 것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핵 태세 결정을 이해하는데 일조하였다.

현실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상황적 조건을 가늠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책 결정자들과 많은 학자들은 오늘 날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철수의 실현 가능성, 실현 방법 또는 철수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²¹⁹⁾ 핵무기 안보에 영향을 주는 피후견국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되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필리핀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료 접근성 문제로 핵무기 안보 문제가 핵무기 철수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소련과 영국의 핵무기 해외 배치 정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으로 미국 핵무기 철수 사례만 분석하였다. 둘째, 핵무기 해외 배치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를 동시에 분석하지 않고 핵무기가 이미 배치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 분석 결과는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핵무기 해외 배치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가 공개되면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보완하여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된 원인이 핵무기 안보 문제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

219) Bram W. Vercamer,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Understanding the Current Debates," *UNODA Occasional Papers*, No. 24 (2013), pp. 1-42; Malcolm Chalmers and Andrew Somerville (eds.), "If the Bombs Go: European Perspectives on NATO's Nuclear Debate," *RUSI Whitehall Report*, Vol. 1, No. 11 (2011), pp. 1-64; Susi Snyder and Wilbert van der Zeijden, "Withdrawal Issues: What NATO countries say about the futur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Utrecht: IKV Pax Christi, 2011), pp. 1-30; Sauer and van der Zwaan, 2012.

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핵무기 철수 사례와 영국의 핵무기 철수 사례를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핵무기 해외 배치와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를 동시에 분석하여 통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는 두 단계 모델(two-stage model)을 이용하여 핵무기 해외 배치와 철수에 관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1) U.S. Department of Defense

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1972. "Crisis in the Philippines, Martial Law and Anti-U.S. Terrorism." Report. (September 26).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51.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U.S. Air Force. 2008. "Air Force Blue Ribbon Review of Nuclear Weapons Policies and Procedures." Headquarters U.S. Air Force.

U.S. Department of Defense. 1974. "Security Criteria and Standards for Protecting Nuclear Weapon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

U.S. Naval Investigative Service. 1976. "The Naval Investigative Service Proposes Running an Informant on "Deep Cover" to Provide Information to U.S. and Philippine Authorities on the Activities of Anti-Marcos Organizations." Cable. (July 20).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 1965–1986. PH0086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3.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2.” Hawaii: Camp H. M. Smith.
-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5.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4.” Hawaii: Camp H. M. Smith.
- U.S. Pacific Command,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1977.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1976.” Hawaii: Camp H. M. Smith.

2) U.S. Department of State

-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1972. “NSSM-155: U.S. Policy toward the Philippines.”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August 28).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10.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Department of State, East Asian and Pacific Interdepartmental Group. 1973. “NSSM-180: U.S. Policy in Southeast Asia in Light of the Southern Philippines Muslim Insurrection.”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July 26). National Security Council Institutional Files.
-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973. “Philippine Communists under Martial Law.” Report. (December 11).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63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Department of State. 1975. "Your Visit to the Philippines." Briefing Book. (November).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28.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2. "GOP Emphasizes Subversive Threat as Bombings Continue." Cable. (September 11).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516.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3. "From the Embassy in the Philippines to the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January). FRUS. 1969–1976. Vol. E-12. Document 315.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4. "An Official GOP view of the Internal Security Situation." Airgram. (February 26).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653.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a. "NPA Assessment as of Mid-1975." Airgram. (October 1).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22.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b. "Law and Order under Martial Law." Airgram. (February 20).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739.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5c. "NPA Arms Raid on Villages Near Clark AB." Cable. (November 24).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918.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U.S. Embassy in Philippines. 1976. "Martial Law III." Airgram.

(January 29). The Philippines: U.S. policy during the Marcos years, 1965-1986. PH00844.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2. 2차 문헌

1) 단행본 및 편저의 일부

- 김성철. 2000. 『필리핀 무슬림』.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 요나톤 모세스(Jonathon Moses) · 투르본 크누트센(Torbjørn Knutsen) 저. 신옥희 · 이왕휘 · 이용욱 · 조동준 역. 2010. 『정치학 연구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서울: 을유문화사.
- 정재호. 2010. 「방법론과 중국연구」. 정재호 편. 『중국연구방법론: 연구설계 · 자료수집 · 현지조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영선 · 남궁곤 편. 2007.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 Allison, Graham and Philip Zelikow. 1999.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ition*. New York: Longman.
- Allison, Graham. 2012. “The Cuban Missile Crisis.” In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llison, Paul. 2010. “Survival Analysis.” In Gregory R. Hancock and Ralph O. Mueller (eds.).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 Bresnan, John. 1986. *Crisis in the Philippines: The Marcos Era and Beyo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 Man, W. K.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leves, Mario, William Gould, and Yulia V. Marchenko. 2010. *An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Using Stata, 3rd edition*. Texas: StataCorp LP.
- Dobbs, Michael. 2008. *One Minute to Midnight: Kennedy, Khrushchev, and Castro on the Brink of Nuclear War*. New York: Alfred A. Knopf.
- Diehl, Paul F. and Gary Goertz. 2001.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Strategies of Inquiry*. Reading: Addison-Wesley Press.
- Fursenko, Aleksandr and Timothy Naftali. 1997. *"One Hell of a Gamble": Khrushchev, Castro, and Kennedy, 1958-1964*.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 Fairbanks, Charles, Jr. 2004. "MAD and U.S. Strategy." In Henry D. Sokolski (ed.). *Getting MAD: Nuclear Mutual Assured Destruction, Its Origins and Practice*.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 George, Alice. 2013.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Threshold of Nuclear Wa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Hobbes, Thomas. 1958. *Leviathan, Parts One and Two*.

- Indianapolis: Bobbs-Merrill.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7. *IAEA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Jervis, Robert. 1984.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ebow, Richard N. and Janice G. Stein. 1994. *We All Lost the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cos, Ferdinand E. 1977.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the Philippines*. Manila: Department of Tourism.
- Marks, Thomas A. 1996. *Maoist Insurgency Since Vietnam*. London: Frank Cass & Company.
- Moses, Jonathon and Torbjørn Knutsen. 2007. *Ways of Knowing: Competing Methodologies in Social and Political Researc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unton, Don and David A. Welch. 2007. *The Cuban Missile Crisis: A Concise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ble, Lela. "The Muslim Insurgency." In Daniel Schirmer and Stephen Shalom (eds.).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Quezon City: Ken incorporated.
- Reed, Thomas. 2004. *At the Abyss: An Insider's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Ballantine Books.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2003. *The Spread of*

-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 W. Norton.
- Schelling, Thomas C. 1966. *Arms and Influence: With a New Preface and Afterwor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chirmer, Daniel B. and Stephen R. Shalom (eds.). 1987.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Quezon City: Ken incorporated.
- Schulte, Paul. 2012. "Tactical Nuclear Weapons in NATO and Beyond: A Historical and Thematic Examination." In Tom Nichols, Douglas Stuart, and Jeffrey D. McCausland (ed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 Shin, Wookhee. 1993.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Seoul: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tataCorp. 2013. *Stata Release 13. Statistical Software*. Texas: StataCorp LP.
- White, Mark J. 1997. *Missiles in Cuba: Kennedy, Khrushchev, Castro and the 1962 Crisis*. Chicago: Ivan R. Dee.

2) 연구논문

- 전재성. 2005.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대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적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 45. No. 3.

- 조동준. 2004. 「국제연합총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 38. No. 2.
- 조동준. 2007. 「교범이 된 거짓말: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위기에서 Trollope 기법」. 『국제정치논총』. Vol. 47. No. 4.
- Arkin, William M. 1983. "Nuclear Security: The Enemy May Be U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9. No. 9.
- Barkley, Daniel. 2008.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3.
- Borucka, Jadwiga. 2014. "Methods for Handling Tied Events in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tudia Oeconomica Posnaniensia*. Vol. 2. No. 2.
- Box-Steffensmeier, Janet M. and Bradford S. Jones. 1997. "Time is of the Essence: Event History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4.
- Box-Steffensmeier, Janet M. and Christopher J. W. Zorn. 2001. "Duration Models and Proportional Hazard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4.
- Chalmers, Malcolm and Andrew Somerville (eds.). 2011. "If the Bombs Go: European Perspectives on NATO's Nuclear Debate." *RUSI Whitehall Report*. Vol. 1. No. 11.
- Cheng, Ta-chen. 1995. "Britain's Nuclear Command, Control and Operations." *復興崗學報*. Vol. 87.
- Chung, Ching-Fan, Peter Schmidt, and Ann D. White. 1991. "Survival Analysis: A Surve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7. No. 1.
- De Soysa, Indra and Eric Neumayer. 2008. "Disarming Fears of

- Diversity: Ethnic Heterogeneity and State Militarization, 1988–2002.”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5. No. 4.
- Dimitrakis, Panagiotis. 2009. “The Value to CENTO of UK Bases on Cyprus.” *Middle Eastern Studies*. Vol. 45. No. 4.
- Dunne, J. Paul and Sam Perlo-Freeman. 2003. “The Demand for Military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Dynamic Panel Analysis.”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4. No. 6.
- Enkhsaikhan, J. 2000.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Concept and Practice.” *Asian Survey*. Vol. 40. No. 2.
- Frankel, Benjamin. 1993. “The Brooding Shadow: Systemic Incentiv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Security Studies*. Vol. 2. Issue 3–4.
- Fordham, Benjamin O. and Thomas C. Walker. 2005. “Kantian Liberalism, Regime Type, and Military Resource Allocation: Do Democracies Spend L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1.
- Fuhrmann, Matthew. 2009. “Taking a Walk on the Supply Side: The Determinants of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 Fuhrmann, Matthew and Sarah E. Kreps. 2010. “Targeting Nuclear Programs in War and Peace: A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1941–2000.”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4. No. 6.
-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2014a. “Nuclear Strategy, Nonproliferation, and the Cause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 _____. 2014b.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 Gartzke, Erik, Jeffrey M. Kaplow, and Rupal N. Mehta. 2014. “The Determinants of Nuclear Force Struc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 Goertz, Gary and Paul F. Diehl. 1986. “Measuring Military Allocations: A Comparison of Different Approach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0. No. 3.
- Goldsmith, Benjamin E. 2003. “Bearing the Defense Burden, 1886–1989: Why spend mo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5.
- Iqbal, Zaryab and Christopher Zorn. 2008.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Assassin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3.
- Jervis, Robert. 1988.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 Com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2.
- Jo, Dong-Joon and Erik Gartzke.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 Kim, Nam Kyu. 2016. “Revisiting Economic Shocks and Coup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0. No. 1.
- Klitgaard, Robert. 1972. “Martial Law in the Philippin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 Koch, Susan J. 2012.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of 1991–1992.”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se Study Series, No. 5.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ramer, Mark. 1995. “The “Lessons” of the Cuban Missile Crisis for Warsaw Pact Nuclear Operation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5.

- Kristensen, Hans M. 1995. "The 520 Forgotten Bombs: How U.S. and British nuclear weapons in Europe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ashington, D.C.: Greenpeace International.
- Kroenig, Matthew. 2009. "Importing the Bomb: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an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 McNamara, Robert S. 1983. "The Military Role of Nuclear Weapon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Survival*. Vol. 25. No. 6.
- Mearsheimer, John J. 1990a.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Monthly*. Vol. 266. No. 2.
- _____. 1990b.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 Mettler, Simon A. and Dan Reiter. 2013. "Ballistic Missil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7. No. 5.
- Moore, Richard. 2001. "Where her Majesty's Weapons We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7. No. 1.
- Munton, Don. 2012. "Hits and Myths: The *Essence*, the Puzzles and the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3.
- Murphy, George, Jr. 2002. "The 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 A Model for Homeland Secu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 Narang, Vipin. 2013.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7. No. 3.

- Norris, Robert S. and William M. Arkin. 1991. "Nuclear Notebook: Where the Weapons A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7. No. 9.
- Norris, Robert S., William M. Arkin, and William Burr. 1999. "Where they we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5. No. 6.
- Norris, Robert S. 1999.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Deployments Abroad, 1950-1977." History of the Nuclear Age Dinner Serie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Piplani, Varun and Caitlin Talmadge. 2015. "When War Helps Civil-military Relations: Prolonged Interstate Conflict and the Reduced Risk of Coup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Potter, William C. 1997. "Unsafe at any siz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3. No. 3.
- Rozsa, Erzsebet N. and Anna Peczeli. 2015. "Nuclear Attitudes in Central Europe." *EU Non-Proliferation Papers*. No. 42.
- Sagan, Scott D. 1996-97.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 Sauer, Tom and Bob van der Zwaan. 2012.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after NATO's Lisbon Summit: Why their Withdrawal is Desirable and Feasibl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1.
- Savaranskaya, Svetlana. 2003-04. "Tactical Nuclear Weapons in Cuba: New Evidenc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
- Schneider, Barry. 1975. "Big Bangs from Little Bomb."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1. No. 5.

- Signorino, Curtis S. and Jeffrey M. Ritter. 1999.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3. No. 1.
- Singh, Sonali and Christopher R. Way. 2004.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 Snyder, Susi and Wilbert van der Zeijden. 2011. "Withdrawal Issues: What NATO countries say about the futur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Utrecht: IKV Pax Christi.
- Subrahmanyam, K. 2010.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rategic Analysis*. Vol. 34. No. 2.
- Uhl, Matthias and Vladimir I. Ivkin. 2001. "'Operation Atom' The Soviet Union's Stationing of Nuclear Missile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5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2-13.
- Vercamer, Bram W. 2013.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Understanding the Current Debates." *UNODA Occasional Papers*. No. 24.
- Waltz, Kenneth.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3) 인터넷 자료 (최종 검색일: 2016년 12월 31일)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Data.
(<http://atop.rice.edu/data>)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4.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Domestic Conflict Event Data and Political Data.
(<http://www.databanksinternational.com>)

Expanded Trade and GDP Data.
(<http://privatewww.essex.ac.uk/~ksg/exptradegdp.html>)

EUGene Program version 3.204.
(<http://eugenesoftware.org>)

Foreign Nuclear Deployment Dataset.
(<http://www.matthewfuhrmann.com/datasets.html>)

The New Rivalry Dataset.
(<http://jpr.sagepub.com/content/43/3/331.abstract>)

New York Times. 1970. "Symington Finds Flaws in NATO's Warhead Security; Greek Incident Hinted." (November 23).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E07E5DD1038E53BBC4B51DFB767838B669EDE>)

Nuclear Arsenal Data.
(<http://www.matthewfuhrmann.com/publications-replication-files.html>)

Savaranskaya, Svetlana and Thomas Blanton. 2013. "Last Nuclear Weapons Left Cuba in December 1962."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449.
(<http://nsarchive.gwu.edu/NSAEBB/NSAEBB449>)

Starr, Barbara and Ryan Browne. 2016. "How safe are US nukes in Turkey?" CNN Politics. (July 19).
(<http://edition.cnn.com/2016/07/19/politics/us-nuclear-weapon-s-turkey-attempted-coup>)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9.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Prague As Delivered."

(April 5).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prague-delivered>)

Abstract

Determinants of Foreign Nuclear Withdrawals

Hong Jungja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s the competing arguments about the determinants of foreign nuclear withdrawals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Since 1945,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Britain deployed nuclear weapons on more than twenty states. Nuclear weapons were deployed abroad for different periods. Some nuclear weapons were withdrawn right after they were deployed (e.g. Cuba) or withdrawn years after the deployment (e.g. South Korea). Even today, several states continue to host foreign nuclear weapons on their territory. This study seeks to explain why nuclear states withdraw nuclear

weapons from some states and not from others – more importantly when do they decide to do so.

This study argues that patron states are likely to withdraw nuclear weapons when nuclear security is threatened. Two hypotheses stem from this argument: (1) host state's high-level domestic political unres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oreign nuclear withdrawal; (2) host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 increases the chance of withdrawal.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I u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 event history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entire universe of cases controlling for potentially confounding factors. Qualitative examination of the Philippines case is conducted to provide additional confirmation to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shed light on underlying causal mechanis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fer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hypotheses. Host state's high-level domestic political unrest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 increase the risk of foreign nuclear withdrawals. The findings show some support for alternative explanations. Patron states are less likely to withdraw nuclear weapons from host states with which they share a common rival. Nuclear weapons are more likely to be withdrawn during Mutual Assured Destruction and post-Cold War peri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nuclear withdrawals and nuclear force structures in general. At the same time, in the aspects of realpolitik, this study can help understand the situational conditions when nuclear weapons will be withdrawn.

Keywords: foreign nuclear withdrawals, nuclear security,
high-level domestic political unrest,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 1945-2000

Student Number: 2013-22891